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 5 次 會議錄 —

1989. 11.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一 般 事 項 …… 3

2．會　議　錄 ……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 83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1.13 (月) 10:00 ~ 12:11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首席代表〉	〈團 長〉
宋 榮 大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	박 영 수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常任委員)
〈代 表〉	〈代 表〉
李 峻 熙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김 광 수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
李 柄 雄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정 덕 기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責任指導員)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榮大) :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北(박영수) : 아, 안녕하십니까?

南(宋榮大) : 편안하셨어요?

北(박영수) : (寫眞記者들을 向해) 또 잡아야 됩니까?

(記者들 寫眞撮影)

北(박영수) :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南(宋榮大) : 예, 오늘 會談날짜를 지난번에 내가 잡았는데 過去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맑게 개어 있고 또 空氣도 퍽 新鮮한 것 같아요.

뭐 이로 미뤄볼 때 오늘 우리 接觸結果도 좀 맑고 新鮮한 結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期待를 합니다.

北(박영수) : 오늘 이제 25日 앞두고 하는 會談이니까 오늘로서는 어떻게 決判을 보아야지요.

오늘 더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물러설 期限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로서 基本的인 妥結은 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南(宋榮大) : 내가 지난번 接觸以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接觸 進行狀況과 最近 變化되는 國際情勢를 견주어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한 두어가지가 있어서 좀 먼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接觸 進行狀況의 速度問題예요.

뭐 박선생 잘 아시겠지만 지난 1985年 우리가 第1次 「訪問團」 事業을 協議할 때에 協議를 시작해가지고 37日만에 妥結을 보았습니다.

北(박영수) : 回數로는 3次고.

南(宋榮大) : 또 그때 세번 會談해서 妥結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第2次 「訪問團」事業과 關聯해서 우리가 協議를 시작한 것이 오늘로서 47日이 되었습니다.

또 會談回數도 우리가 지금 다섯번에 이르고 있다 그것이지요.

뭐 이렇게 놓고보면 歷史가 지금 發展하고 있는데 우리 하는 일이 너무 後退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點에서 내 스스로 代表團의 한사람으로서 自愧之心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하나 생각나는 것이 박선생 뭐 報道를 통해서 보신 바와같이 最近 獨逸의 「베를린」障壁이 뚫렸습니다.

얼마前에 東獨의 國境開放 措置로 因해 가지고 東·西獨間에 自由往來의 길이 트였습니다.

뭐 數萬, 數百萬의 사람이 지금 오고가고 있어요.

내가 며칠 前에 우리 텔레비젼放送에서 獨逸事態를 갖다가 비춰 주는 것을 보니까 「베를린」障壁위에 東·西「베를린」市民들이 올라가서 함께 歡呼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南北間에도 저와 같이 分斷의 障壁을 허물어야 되겠다.

아마 이 앞에 지나가는 이 線이 分界線같은데, 이것을 이제 헐어내는 作業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의 基礎作業을 우리 赤十字人들이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點에서 우리가 「歷史의 遲刻生」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點에서 이 「訪問團」事業을 年內에 기필코 成事시켜야 된다.

만약 이번에 다른나라 사람들은 지금 分斷의 障壁도 헐고 있는 마당

에 우리가 이 적은 規模의 「訪問團」事業마저 實現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赤十字人들이 어떻게 歷史와 겨레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뭐 이런 點에서 우리로서는 오늘 어떻게든지 決判을 내야 되겠다.

아까 박선생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남았는데 이제는 끌 時間도 없고 올데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結論을 짓자 하는 그런 姿勢를 가지고 왔습니다.

北(박영수):내가 아까 요새 報道를 보면서 무슨 일이 생각났는고 하니까.

전번에 文益煥牧師있잖아요? 公判場에서 하신 말씀이 『남(他人)이 그어놓은 이 境界線을 우리 스스로 없애지 못하고 지금 45年이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없애야 되겠다. 이런 覺悟로 해서 平壤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더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人民이 要求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民族이 무슨 要請한 것도 아닌데 다른나라 사람들이 이놈의 分界線을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民族이 스스로 이것을 없애 버려야지 外國사람이 그어놓은 것을 外國사람보고 없애달라고 할수는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分界線 없애는 作業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될 責任이다. 그래서 우리 統一問題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건 우리 民族內部問題이고 우리 民族의 努力如何에 따라서 이놈의 分界線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985年度에 세차례의 會談을 통해서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

問題를 妥結했는데 이것 4次 또 5次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거 後退한 感이 있지 않느냐? 宋先生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안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985年度에는 小規模로 簡單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次이니까 規模를 좀 크게 해서 더 잘 해보려니까 한두차례 더할 수는 있겠다.

問題는 이번 2次할 때에는 크게 통을 크게 그야말로 우리 民族史에 特記할 事變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訪問團」交換事業을 成事시켜야겠다.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고 이거 안하면 民族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赤十字人들 資格 다 내놓고 一般가서 勞動이나 해먹든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오?

오늘 接觸이 아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北(김광수) : 남들은 數拾萬이 障壁을 허물고 넘나든다는데 우리야 이거 뭐 한 700名 人員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宋先生 통이 크게 놀 것 같구만, 아침부터 「콘크리트」障壁이랑 허물고 좀 나서잔 말입니다.

南(宋榮大) : 아주 두분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分斷의 障壁을 허는 일을 하는데 우리 民族 自體의 意志와 自體의 力量으로 해야 됩니다.

北(김광수) : 대담하게 통이 크게 하자 말입니다.

한 50名이나 100名 이렇게 하지 말고 한 600名, 700名 통이 크게 이렇게 하잔 말입니다.(一同웃음)

南(宋榮大):그래서 障壁을 허무는 그 方法에 있어서 …….

北(김광수):또 段階論이야, 야 이거 …….

南(宋榮大):正常的 方法, 合法的 節次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規模 크게 하기 위해서 좀 時日이 좀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規模도 크게 하고 時日도 短縮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죠.

北(박영수):障壁을 허는 것은 障壁이 어느 때 가서 헐리는가 하면 本會談이 再開되고 한두차례 또는 두서너 차례되면 이 障壁이 없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南(宋榮大):그래서 그 基礎作業을, 첫 걸음을 우리가 내디뎌야지요, 이제.

北(박영수):몇千萬이 몇百萬이 왔다갔다 하면 그런 障壁이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예요.

北(정덕기):赤十字人들이 앞장 섭시다. 統一의 障壁을 없애기 위해.

北(박영수):그러면 障壁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南(宋榮大):우리 오늘 다 같은 精神을 가지고, 우리 다 생각이 같으니까.

南(李柄雄):오늘 하여튼 매듭을 지으면 그와같은 問題 다 解決이 되니까 오늘 잘해 봅시다.

北(박영수):요즈음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요 며칠 前에 勞動을 하러 나갔댔어요. 우리는 어떤 制度가 있는가 하니까 事務員들이 계속 앉아서 事務만 보고 뭐 글만 쓰고 하다 나니까 이것 健康에 좋지 않고.

그래서 肉體的 勞動도 한 週日에 한번씩 나가서 좀 하면서 바람도 쐬이고 그다음에 勞動者, 農民한테 그들한테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런 意味에서 1週日에 한번씩 우리가 勞動을 나간단 말입니다.

이번 勞動에 나가가지고 김장 무우·배추 뽑는 作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今年度에 우리 北에서 보면 김장무우·배추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왜그러한가 하면 灌水體系가 되어있는데다가 今年 가을에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무우·배추가 상당히 잘 되어서 한통에 5～7 *kg*, 10 *kg*짜리도 많더군요.

그걸 또 무우를 뽑으면서 가만 생각해본게 뭔가하면 무우꼬리가 있어요. 今年에 무우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가을 무우꼬리가 길면 그해 추위가 심하다 그런 말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 今年 겨울에 혹시 추위가 더심해지겠는지 모르겠습니다.

南(宋榮大) : 南北이 農事가 잘된 것은 참 좋은 일이죠.

北(박영수) : 아, 잘된 것이지요. 그럼.

南(宋榮大) : 그래서 우리側에서도 올해 비는 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收穫量이 平年作을 넘어서 한 4,000萬섬 이 程度 됐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일입니다.

北(박영수) : 그럼 많이 나야죠.

그것 다 우리 民族이 먹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은 아니니까.

南(宋榮大) :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갈길이 좀 바쁜 것 같은데 歡談은 뒤로 미루고 會談을 시작합시다.

北(박영수) : 그 말씀 이제 지금 잘했어요. 갈길이 바쁘다 말이예요.

南(李柄雄):빨리 저 結束을 해야 하니까…….

北(박영수):그래서 緊急提案을 좀 한두가지 하고 싶은데 오늘 會談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고비다.

오늘 會談이 고비인데 오늘 會談에서 基本的으로 이걸 妥結을 보고 그래서, 그래서 정 副次的인 問題가 안되면 우리 代表接觸에 넘겨서라도 完全히 끝내야 되니까.

그런 意味에서 오늘 接觸이 이제 고비로 되는 會談이기 때문에 오늘 接觸만은 다 記者들한테 內容을 公開를 하면서 했으면 어떻느냐?

지금 1次를 公開로 했고 2, 3, 4次를 지금 非公開로 했는데 오늘 程度는 마지막 會談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公開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南(宋榮大):事實 지금 오늘이 고비라, 오늘이 最終 妥結局面인데 이 妥結을 손쉽게 할려고 하면 公開보다는 非公開가 좋지 않겠느냐.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쳐서 非公開로 죽 해왔기 때문에 그 慣例를 우리가 尊重하는 意味에서도 非公開로 하고 일단 合意書를 作成을 해서 發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合意書를 우리가 作成해서 發表할 그때가서 公開합시다.

그래서 作品을 만드는 過程에서는 慣例에 따라서 非公開로 하고 作品의 結果를 가지고 기쁜 消息을 온 겨레에 전해주는 그 段階에 가서 公開됐으면 좋겠다.

北(박영수):그때면 公開고 뭐고 없지요. 그저 合意書 發表하면 되니까.

오늘 마지막 會談이니까 한번 公開를 좀 해봅시다.

北(정덕기):時代의 趨勢에 맞게…….

北(박영수):세차례를 非公開로 했으니까 오늘 한번 公開로 해 보자구요.

南(李柄雄):세차례에 걸쳐 非公開로 했는데 오늘 또 特別한 案件이 있어요?

北(박영수):내가 세차례 非公開로 하자는데 同意를 했는데 오늘만은 내가 要求를 하니까 한번 非公開로 해봅시다.

南(李柄雄):結論을 내야니까. 우리 非公開로 해서 빨리 結束을 짓고 그리고 合意事項을 發表해야 오히려 빨리 뭐가 成果가 있지. 從前대로 하지요?

北(박영수):아니 그러니까 非公開로 하나 公開로 하나…….

南(李峻熙):큰 差異가 없어요. 慣例대로 해요.

北(박영수):慣例는 뭐 원래 慣例를 따지면…….

南(李峻熙):그동안 몇번의 慣例가 있잖아요?

요 最近에 몇번의 慣例가 있어요.

北(박영수):1次 慣例가 또 있어요.

南(李峻熙):아니 몇번의 慣例가 있잖아요? 요 最近에 몇번의 慣例가 있어요.

北(박영수):宋先生, 宋先生! 요 좀 아주 발전하는 趨勢에 맞게 우리 北南赤十字人들이 團合을 위해서 統一을 위해서 막혀진 問題를 어떻게 잘 妥結하는가. 한번 좀 이럽시다.

北(정덕기):오늘 公開로 합시다. 오늘 어떻게 잘 妥結하는가 좀 보여줍시다.

南(宋榮大):우리 1次 接觸때에 會談 公開與否에 關해서 얘기할 때에 내

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赤十字 本會談도 非公開를 原則으로 合意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실거예요.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고 進行하고 있습니다. 이 本會談도.

그런데 하물며 이 實務接觸, 實務者 몇사람이 만나서 이거 하나 하나 細部的인 問題 妥協하는데 公開할 必要가 무어가 있겠는가?

그리고 過去 經驗이 말해주듯이 그래도 公開보다는 非公開에서 오손도손 만나서 하는 그 過程을 통해서 하면 그 무언가 合意가 生産됐습니다. 그래서 慣例도 있고 하니까…….

北(박영수) : 그쪽에서 잘못 理解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非公開를 原則으로 했더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非公開를 基本으로 하는데 公開로도 할 수 있다는 餘裕가 있는 것이고, 그 말뜻을 따지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은 記者들은 일단 다 나가서 밖에 擴聲器로 듣고 우리 얘기할때에는 조용히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記者들이 듣도록 하는 거죠.

왠가하면 記者會見할 때에도 會談進行內容을 얘기해 주자니까 記者會見 자체가 길어지고 뭐 물어보는게 많고 그저 記者들한테 다 이렇게 公開해 놓으면 別 問題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그저 오래간만에 要求하는 것이니까, 오늘 한번 公開로 합시다. 오늘 그저 마지막 會談이예요.

南(李峻熙) : 要求도 좋은데 아까 오늘 會談이 마지막 고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意見이 接近이 안된 部分이 있다 그것이지요.

그것은 지난번 4次 接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좋은 案을 가지고 나온 모양인데, 우리도 좋은 案 가지고 나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항상 雙方은 좋은 案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接近이 잘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以前에 해왔던 그 慣例대로 좋은 案이 接近이 되면 바로 公開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좀더 充實히 하기 위해서는…….

南(宋榮大) : 지난번 4次接觸 때 제가 記者先生들앞에서 오늘 會談을 우리가 非公開로 했으면 좋겠는데 貴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을 때에 박선생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아 그거야 非公開로 하는게 慣例로 되어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그 말을 다시 합니까?』하고저한테 反問했었습니다.

北(박영수) : 그날은 그랬는데……. (一同 웃음)

南(宋榮大) : 그런데 새삼스럽게 公開를 主張합니까?

北(박영수) : 그게 그때 狀況에는 맞는 거고 오늘에야 잘 이렇게 妥結을 보고…….

南(宋榮大) : 不過 사흘 差異예요. 불과 사흘 差異인데 왜 그때에는 그런 말을 하고 오늘와서는…….

南(李峻熙) : 그러니까 우리 박선생쪽에서 좋은 案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것 나중에 보고 어디 좋으면 그때까서 公開를 하죠, 뭐.

南(李柄雄) : 中間中間에라도 合意되면…….

南(宋榮大) : 그럽시다. 오늘말이예요. 일단 非公開로 시작해서 어느정도 意見이 接近됐다 이 정도면 우리 記者先生들한테, 겨레한테 다 깨놓고 보

여줄 수 있다, 發表할 수 있다하면 그 段階에 가서 公開합시다.

北(박영수) : 나는 참 생각이 이상하다.

南(宋榮大) : 이건 神經도 안쓸 問題인데…….

北(박영수) : 물론 이것은 신경쓸 것도 아니지.

난 그래서 세차례를 非公開로 했는데 내가 한번 公開로 해주십사 하는 要請을 하며는 『예, 그렇게 합죠』하고 이렇게 對答할줄 알았는데 역시 또 壁이로구만, 壁이요.

南(宋榮大) : 그래서 자 이거 우리 重要한 것 아니니까.

北(박영수) : 그럼 그래서 저 記者先生들 다 要求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게 다 一致한 要求일거예요. 그래서 오늘만은 좀 公開로 합시다.

南(李峻熙)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案이 서로가 接近이 돼야, 됐을 때 우리 記者先生들한테 公開하지.

北(박영수) : 하다가 途中에?

南(李峻熙) : 뭐 3次때나 4次때나 별로 接近이 없으면 그만 크게 失望을 한다 그말이예요.

北(박영수) :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러잖아요?

南(李峻熙) : 그러니까 된 後에 그렇게 합시다.

北(박영수) : 도중에 하다가 뭐 그다음에 公開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南(李峻熙) : 우리 박선생 얘기가…….

北(박영수) :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公開로 좀 해봅시다.

南(宋榮大) : 그러면 말이죠.

오늘 어떻게든지 끝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한두시간사이에 合意가 안된다면 오늘 오후라도 會談을 續開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狀況이 오며는 午後에 公開합시다.

午前에는 慣例대로 非公開로 하고 만약 오후에 續開되는 狀況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公開해도 좋습니다.

北(박영수) :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會談을 公開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힘들어 해요?

南(李峻熙) : 박선생 그 問題가지고 20分 지났어요, 20分이. 아주 答합시다.

北(박영수) : 慣例, 慣例하는데 慣例는 고칠 慣例도 많아요.

南(李柄雄) :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1次때에도…….

北(박영수) : 1次때 公開했어요.

南(李柄雄) : 아니, 1次 故鄕訪問團 問題 解決할 때에도 우리가 實務的인 協議는 非公開로 했고 그리고 合意된 事項을 發表해야 하는데 지금 마지막날에 어떻게 하든지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事實은 여러가지 어려운 애기가 있을거예요. 서로가.

北(김광수) : 赤十字人들이 하는데서 그 무슨 어려울 애기 있겠습니까?

柄雄先生! 赤十字人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야, 좋으면 좋았지 나쁜 일이 없지요.

南(宋榮大) : 새삼스럽게 왜 이 問題를 가지고들 그럽니까?

北(박영수) : 글쎄 오늘 잘하려니까 멋있게 잘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고. 자꾸 궁금해 한단 말이예요.

南(李峻熙) : 結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려야지 公開해서 애기만 해서 좋

은 結果 안나오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北(박영수) : 우리는 좋으리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뒷 골방에서 자꾸 하자고 그러지 말고 한번 탁 털어놓고…….

南(李柄雄) : 오전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매듭이 안되면 午後에 지금 首席代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午後에 公開를 해서 하십시다.

北(박영수) : 그러면 公開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말인가?

南(宋榮大) : 그런 뜻보다도…….

北(박영수) :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公開로 하자.

南(李峻熙) : 세상에 絕對라는게 어디 있어요?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한번 提起한 거니까 그대로 公開로 한번 합시다.

南(宋榮大) : 내가 왜 절충안을 냈잖아요?

北(박영수) : 어느 것?

南(宋榮大) : 그러니까 午前에는 慣例에 따라서 非公開로 하고 午後에는.

北(박영수) : 午前에 되겠는지 午後에 會談이 繼續되겠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午前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못끝나는 狀況이 되며는 午後에 만나요.

北(박영수) : 아니 그러지 말고…….

南(李峻熙) : 그동안에 非公開로 해서 우리가 誠意있는 努力을 雙方이 기울여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좀더 結實이 되면서 우리가 繕物 公開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아무런 接近도 못하면서 公開만 해서 뭐 서로가 『나

옳소 너, 당신 옳지 않소』하는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北(박영수) : 나는 오늘은 結實이 …….

南(李峻熙) : 내가 볼 때에는 오늘 박선생 좋은 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으니까. 우리 우선 보고 나중에 뚜껑 열 때에 公開하면 되죠. 내 얘기는 그거예요.

南(李柄雄) : 그 問題는 그 程度하고 會議 시작해야지 이거 벌써 30 分 다 돼가는데 우리가…….

北(박영수) : 우리 結實을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結實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南(宋榮大) : 會談 시작합시다.

南(李峻熙) : 우리 박선생 모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안들어줘서 안됐지만, 非公開로 합시다.

北(박영수) : 안됐지요? 안되었다는 것은 認定을 하시오.

南(李峻熙) : 됐어요. 이제……. (一同웃음) 자 이제 합시다.

北(박영수) : 뭐 어쩌겠어요? 이거 정 公開로 못하겠다느만, 우리 記者先生들 다 듣는데서 얘기가 됐는데 뭐 할 수 없지요. 오늘 公開로 못하는 것은 상당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南(李柄雄) : 좋은 結果가 나오는 것이 더 重要할거예요.

北(박영수) : 그리고 내 두번째로 緊急提議할 것은 이거 時間이 많이 갔는데 그 基本發言이라는거, 이거 不必要한 工程같아요.

뭐 그렇게 되며는 전번에 보니까 雙方 基本發言 끝났는데 한時間 대체로 넘더란 말이예요.

거기 내가 이런案 내놓았는데 좋은 거고 뭐 당신네 내놓았는데 어쩌고 이런말을 자꾸 하는데 아예 이런말 싹 걷어 치우고 지금 저 未解決問題를 처음부터 한 問題씩 놓고 訪問團 規模問題, 처음부터 規模問題 討論 들어가고.

이런 式으로 會談을 하면 어떻겠는가? 基本發言 서로 그만두고 첫 發言 그만두고.

南(宋榮大) : 저 그거 좋습니다. 좋아요.

뭐 역시 우리가 相對方의 意思를 尊重하는 意味에서…….

南(李柄雄) : 자 會談이 進行되도록 합시다. 빨리.

北(박영수) : 어쨌든 오늘 宋先生 公開로 하자는 거 받아주지 않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遺憾스러워요.

南(宋榮大) : 우리가 오늘 또 첫 發言 關聯해서 이걸 양보한 것도 認定해야 합니다.

南(李柄雄) : 좋은 消息이 나갈 겁니다.

北(박영수) : 상당히 고집들이 세시오.

南(李峻熙) : 고집이 세긴 뭐가 고집이 세요?

南(宋榮大) : 입싸움을 할 問題가 아닌 것을 가지고 時間만 끌었습니다.

南(李峻熙) : 우리 박선생도 고집이 상당히 세네, 그러면.

北(박영수) : 아니 나는 오랜만에 한번 提起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돼. 아니 난 너무한 것 같아.

南(李峻熙) : 박선생이 오늘 진짜 좋은 案을 가지고 나오신 모양인데 하여튼 오늘 合意를 봅시다. 뭐 時期도 얼마 안남았고.

北(박영수) : 난 그저 『非公開로 하십시다』하고 提起하면 『예 그거 同

意합죠』 그럴줄 알았는데 그걸가지고 15分동안 승갱이질을 했구먼요?

南(李柄雄):두번 잘 나가다가 오늘은 우리 俗談에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딴 얘기 나와서 오늘 複雜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南(李峻熙):잘하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거지 뭐.

北(박영수):하여튼 雰圍氣는 좋습니다.

南(李峻熙):雰圍氣가 基本的으로 좋아야 돼요.

北(정덕기):雰圍氣가 重要합니다. 會談에서.

南(宋榮大):여기 첫發言 가져왔는데 안하겠습니다.

北(박영수):첫發言 그만두고.

南(宋榮大):예, 안하겠습니다. 쉽게 합시다.

北(박영수):規模問題부터 그저 하나씩 들어갑시다.

南(宋榮大):박선생이 지난 接觸 末尾에서 무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訪問團問題 討議하는데 무엇보다도 赤十字人道性 原則에 서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北(박영수):人道性의 原則을 지키면서 同時에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려는 立場에 서야 된다.

南(宋榮大):예, 알아요.

北(박영수):同時에 理解해야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떼지를 말고.

南(宋榮大):알아요.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하세요.

여기 赤十字 人道性의 原則은 뭐냐? 잘 아시는 바와같이 「人間의 苦難을 豫防 및 輕減시킨다」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人間의 苦難을 豫防 및 輕減시킨다 하는 立場에서 이 問題를 定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問題가 되어있는 藝術團의 交換問題, 이건 뭐냐? 이건 藝術團 交換의 目的에 대해서 貴側에서는 무어라 했느냐 하면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 하고, 雙方間에 藝術團 規模問題와 中繼問題만 解決되며는 나머지 問題는 30分안에는 끝낼 수 있다』는 말 했습니다.

나는 박선생말에 留意를 하면서 우선 規模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 規模問題에 관해서 故鄕訪問團 300名이라고 하는 것은 見解가 一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껴놓고 爭點이 되어 있는 規模問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는 그 藝術團 規模와 100名이 適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몇가지 理由가 있습니다. 우리가 規模問題를 定하는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雙方의 合意事項입니다.

우리가 70年代初 赤十字會談 시작할 때에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赤十字의 人道性 原則 또 民主의 原則, 「7.4聲明精神」 등등에 立脚해서 解決한다 하는데서 合意를 했습니다.

지난번 接觸 때 박선생 첫 發言하면서 우리 雙方이 理解를 높이고 民族的인 和解와 團合을 造成하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目的에 대해서 나로서는 조금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討論하고 싶지는 않고, 重要한 것은 人間의 苦難을 豫防·輕減을 시키겠다는 立場하고 藝術公演의 立場하고 같이 놓고 볼 때에 이것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썩 어울리지가 않아요.

썩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다가 結合시킨다고 할 때에 남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人間의 苦難豫防·輕減立場이라고 하는 精神에서 故鄕訪問團 數字가 많아야 되고 또 그 中心이 되어야 되고, 藝術團은 故鄕訪問團의 하나의 附隨的 事業으로 實施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立場에서 본다면 數字問題에 있어서도 藝術團의 數는 100名이 適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 우리 雙方이 合意한 事項가운데 「民主」 原則이 있습니다. 이 「民主」 原則은 뭐냐? 離散家族當事者들의 自由意思를 尊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思가 어떤가? 이 問題에 관해서는 내가 지난번 接觸때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要約하면 「故鄕까지 가야되겠다」 그겁니다. 또 「省墓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要求는 열화와 같이 아직도 우리한테 닥쳐 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要求를 貴側에 理解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發表한 聲明書를 여기 가져와 가지고 決議事項 세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 決議事項 가운데 첫번째가 뭐냐?『이번 訪問團事業은 故鄕訪問團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죽 나왔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決議했느냐 하면 『藝術團은 別個의 會談에서 別個의 事業으로 實施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支配的 意見입니다.

또 우리가 藝術團 規模와 關聯해서 우리側 赤十字藝術人들의 意思를 다 들어 보았습니다. 貴側에서 300名 내놓으면서 이것은 貴側 藝術人

들의 要求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側 赤十字 藝術人들의 意思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의 結論이 뭐냐하면 『赤十字 人道主義事業 次元에서 하는 藝術團이라고 한다면 뭐 50名 程度 適合한데, 相對側에서 굳이 그 數字 늘여 주기를 要求한다면 그저 100名 程度면 充分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우리가 100名을 提示하는 背景에는 우리 離散家族들의 意思를 우리가 充分히 念頭에 두고 내놓은 數字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우리 雙方이 合意한 「民主」 原則에 全的으로 符合되는 數値다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100名을 내놓게 된 것은 國際慣例를 充分히 考慮했습니다.

事實 南北間의 事業을 하는데 있어서 國際慣例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걸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歡談때 박선생께서 『우리 統一問題 우리끼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했는데요, 그런 脈絡에서 보면 이번 藝術團 問題에 관해서 國際慣例 適用시키는 것 그렇게 썩 어울리는 일은 아닌데 貴側에서 먼저 國際慣例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도 國際慣例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昨年 88서울올림픽 때에 世界의 有名한 藝術團들이 와가지고서 藝術公演을 했습니다. 11個에 달하는 藝術團이 와서 公演을 했어요.

그中에 몇가지만 參考로 말씀을 드린다면 蘇聯의 「볼쇼이」 발레團 잘 아실겁니다. 50名 왔습니다. 英國의 「런던 켄템프러리」 무용단 26名 왔습니다. 美國의 「워싱턴」 발레團 30名 왔어요, 항가리 「비요르」

現代발레團 37名 왔습니다. 그리스 國立劇團 41名 왔습니다. 日本「가부께」60名 왔습니다. 프랑스 「코메디·프랑세즈」有名한거죠, 72名 왔습니다. 폴란드의 「가르기와나」劇團 16名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수있는 것은 올림픽 때…….

北(김광수) : 綜合公演이 아니구만요, 모두.

南(宋榮大) : 綜合公演이지요. 지금 日本, 프랑스 이건 다 綜合公演이예요.

여기서 제일 많은 數字가 72名 입니다, 72名 이예요.

또 우리側에서 海外에 藝術團 많이 보내고 있는데 100名內입니다. 100名內.

그래 이런 것도 考慮를 하면서 100名이라고 하는 數字를 定했다 하는 이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하나 우리가 100名을 提示한 背景에는 貴側 主張을 最大限 考慮했습니다.

貴側은 第8次赤十字 本會談 때, 1985年 5月에 열린 겁니다, 8次 赤十字 本會談 때에 藝術團 交換을 처음 提起하면서 그 數를 100名으로 提示했습니다.

아마 박선생 잘 아실겁니다. 그때 貴側 이종률 團長께서 藝術團 交換問題를 처음 꺼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거 引用해 왔습니다.

『나는 赤十字會談의 雰圍氣를 좋게 하며 우리의 人道主義 會談이 祖國統一偉業을 促進하는데 더 크게 寄與하도록 하기 위한 對策으로서 祖國解放 40돌을 맞이하는 今年 8月에 해당 赤十字團體의 委員長들이 각기 赤十字會員들로 구성된 100名 程度의 藝術團을 帶同하고, 100名 程度의 藝術團을 帶同하고, 相對側 地域을 互相訪問하여 傳統的인 民族歌舞를 基本으로 祝賀公演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정중히 提起하는 바입니

다』 하고 말했습니다.

北(김광수) : 1次 「訪問團」 交換 때 그렇게 하자고 提起한 거지요? 明白히.

南(宋榮大) : 가만히 계세요.

北(김광수) : 지금께 아니라 1次 藝術團·故鄕訪問團을 交換할 때에 100名으로 하자고 提起한걸 銘心해야 합니다.

南(宋榮大) :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여기 分明히 그때 貴側에서는 1次다 2次다 하는 槪念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北(김광수) : 아니 그때에…….

南(宋榮大) : 아니 들어보세요. 김선생!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北(김광수) : 이야기하십시요. 그거 明白히 하는 것이…….

南(宋榮大) : 내가 다 發言한 다음에 質問해 주시면 내가 充分히 對答해 드릴테니까.

北(김광수) : 말씀하십시요.

南(宋榮大) : 그때 貴側에서 1次다 2次다 하는 槪念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貴側에서 말한걸 죽 綜合해 보면 『光復 40周年을 祝賀하기 위해서 하자』 그리고 그후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第10次 會談때에 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고 提議하니까 『아니 그럴 必要없다. 本會談 열려서 妥結되면 다 解決된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前後의 脈絡을 綜合해 놓고 보면 貴側에서는 分明히 지난 1985年에 있었던 1次 「訪問團」 事業은 1回性으로 提起를 했고 또 1回性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종률團長이 100名을 提示했던 것은 2次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번 하는데 南北韓의 事情으로 봐서 100名 程度면 된다하는 생각에서 내놓은 것으로 나는 理解합니다.

그래서 公式會談에서 더구나 本會談에서 貴側 團長이 責任있게 내놓은 數字 100名을 우리가 充分히 考慮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貴側에서는 이렇게 할겁니다.

이번에는 2次고, 2次는 발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르다 하는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번에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 하게 되면 文化交流次元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할려고 한다며는 어디까지나 故鄕訪問團 爲主로 해야 됩니다.

또 貴側은 지난번 接觸에서 이번 2次 訪問團 性格에 관해서 象徵的事業이라고 主張했습니다. 특히 지난 3次接觸時에 박선생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辭典까지 다 찾아보았다고 그러면서 『象徵이란 어떤 事物,思想 등을 이것과 어떠한 意味로 相通하는 다른 事物에 의하여 聯想的으로 表現하는 일이다. 또는 그 對象物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럴 경우에 이 故鄕訪問團 300名은 1千萬 離散家族이라고 하는 큰 數字에 비춰 볼때에 象徵性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名의 家族相逢은 1千萬 離散家族再會를 聯想시킬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藝術團 100名, 우리側에서 提示한 100名을 그런 점에서 보면 象徵性을 充分히 發揮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100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象徵의 段階를 넘어선 具體的

이고 實際的 次元의 數字입니다.

왜? 萬名, 10萬名의 藝術團이 어떻게 합니까?

또 貴側은 이번 「訪問團」 事業을 象徵的으로 하자고 하면서, 특히 訪問地 問題에 있어서 象徵性을 强調하고 싶다. 訪問地 問題를 象徵的으로 해야 한다하면서 故鄕까지 갈 수없고 서울·平壤으로 局限시켜야 된다 하는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藝術團 問題에 관해서는 非象徵性을 强調를 합니다. 가장 重要한 故鄕訪問團쪽, 특히 訪問地쪽에서는 象徵性을 强調를 하고 附隨的이라고 할 수 있는 藝術團쪽에서는 非象徵性을 强調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論理의 모순입니다.

또 象徵的으로 할 경우에 우리는 그 規模가 아니라 藝術團 交換 그 自體에 意義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내놓은 100名 規模는 매우 適正한 規模다 하는 것을 거듭 말합니다.

北(박영수) : 끝났어요?

南(宋榮大) : 예.

北(김광수) : 折衷案은 안내는걸 보니까, 案은 없다는 소리인가?

南(李柄雄) : 50에서 100을 냈지.

北(박영수) : 100名 밖에 없다.

北(김광수) : 그건 저번 내놓은게고. 그건 전번에 내놓은게 아니요?

南(宋榮大) : 倍로 늘렸잖아요?

北(김광수) : 오늘 가져온것, 오늘 가지고 온것 내놓으세요. 合意볼 수 있는것.

南(李柄雄):그쪽도 數字를 한번 提示를 하십시요.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것 없이.

北(박영수):이제 宋先生 죽 말씀을 整理해 보면 여러가지로 長時間 合理化하는 發言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100名 밖에 못한다 이거죠?

난 그저 發言을 죽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 원래는 100名이 좋았는데, 그러나 어쩌겠는가? 妥協을 해서 成果를 시켜야 되겠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 올린다』 이런 誠意가 있는 發言이 마지막에는 나올줄 알았는데 아 그게없이 중도에 그치고 마는구만요.

상당히 그런면에서 失望한다고 하면 글쎄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訪問團 規模問題, 具體的으로는 藝術團 規模問題 그거죠, 宋先生이 왜 藝術團을 100名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論據를 상당히 여러가지로 많이 硏究를 한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건데는 그 論理들은 一面的인 論據들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藝術團 規模를 적어도 300名, 전번에 우리가 250名으로 줄여서 提案을 했지마는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問題에 대해서 强調를 했습니다.

宋先生님 이제 自己側 100名 規模를 合理化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論據들이 일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더 整理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藝術團 規模를 늘이자 여기에는 몇가지 理由가 있습니다. 하나는 雙方 合意事項에 비추어 볼때 이것이 전적으로 符合되는 提案이다.

이미 지금까지 4차례의 接觸過程에 여러차례 論議가 되었지마는 우리 北南赤十字團體들이 合意하고 있는 主要한 原則이 다섯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人道的 問題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을 具現해 나간다는 것과 同胞의 精神을 具現해 나간다는 것과 그리고 主要하게는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을 基本內容으로 하는 7.4共同聲明의 精神을 具現해 나간다. 이것이 合意事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本會談, 10次에 걸친 本會談 過程에 雙方이 수십차례에 걸쳐서 强調해서 서로 合意한 바가 뭐인가 하면 우리가 人道的 問題들을 解決하는 과정을 통해서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 大前提에 우리가 合意하고 있습니다.

이 大前提에 비추어 볼때 1985年度에 우리가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事業이 좋은 先例를 남겼는데 이것을 하면서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는데서 흩어진 家族·親戚들 相逢을 實現시켜주는 問題 重要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事業이고.

同時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赤十字團體가 誤解와 不信으로 누적되어 온 北南關係 이것을 民族和解와 團合의 局面으로 돌려 세울수는 없는가. 이 面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방관시 하거나 外面하면 안된다는겁니다.

民族和解와 團合의 雰圍氣를 돋구어 주는 意味에서 藝術團 交換 公演이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또 이것이 本會談의 좋은 雰圍氣를 造成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더 强調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藝術團 規模를 늘리자고 하는 첫번째 論據

로 提起합니다.

둘째로 원래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하자고 한 취지에 비추어 놓고 볼때 역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 이 두가지 人道的 事業 가운데서 어느하나를 次要視할 수 없다. 이 問題는 서로 다른 次元에서 다같이 重要한 事業이다.

이제 宋先生 지금 發言에서도 어디까지나 藝術團은 副次的이고 故鄕訪問團은 主다 이런 論理를 전개하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네차례의 接觸를 통해서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85年度에 進行된 세차례의 實務代表接觸 論議 過程에 이건 明白히 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것이 主고 從이 될 수 없다. 이 問題에 대해서 雙方이 合意를 했습니다, 85年度에. 그래서 결국 50:50 同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직도 藝術團은 副次的이고 故鄕訪問團은 主로 되는 事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와서는 그런말은 必要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宋先生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서 해야 된다. 또 어떤때는 便宜主義的으로 해야 된다, 便宜 主義, 不文律의 原則이라고 하면서 便宜主義까지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는데 慣例를 놓고 볼때 우린 同數입니다, 원래 同數. 그것이 이미 85年度에 合意가 돼서 執行을 한 慣例입니다.

원래는 同數로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처음 實務代表接觸을 시작할 때에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同數로 하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걸 여러차례 强調를 했는데 결국 藝術團 規模問題에서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찌 했는가 合意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럼 同數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좀 많이하고 그쪽에서는 적게 할려면 적게 하라 이런 案을 우리가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의 論據로 提起를 하며는 우리는 발전적으로 한다는 見地에서 거기서 50名 늘였기 때문에 이건 발전적 見地에서 맞는다 했는데, 발전적으로 하자며는 애당초 한側에서 一方으로 藝術團 規模를 300名으로 하자고 했으면 그것이 그쪽에서 不可能한 일이 아니라면, 不可能한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同意해 주는것이 원래 옳지 않겠는가.

또 늘이는 것이 民族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 유리한 일이라면 그것을 구태여 마다할 必要가 없지 않겠는가.

다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宋先生, 藝術人들의 要求고 離散家族들의 要求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離散家族들은 藝術團 交換과는 다른 次元에서 하고 故鄕訪問團 交換事業만 赤十字線에서 해야 할 것을 要求한다 했는데,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난 離散家族들로서는 그 사람들의 立場에서는 藝術團을 그만두라, 적게하라 이렇게 할 처지에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確信합니다.

무엇때문에 그 사람들이 故鄕訪問團 問題에서 規模를 늘여 주시오, 故鄕까지 가게 해 주시오 하는 意見은 提起할 수 있으되 전혀 자기들의 問題와 관계없는 藝術團을 다른 次元에서 해 주시오. 이거는 하지 마시오. 그런 意見을 무엇때문에 提起를 하겠는가? 도저히 그 問題에 대해서는 납득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宋先生 이제 말씀하는 과정에 『85年度에 한것은

1回性 事業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1回性事業이다 아니다 하는 問題는 없습니다.

「8.15 解放」 마흔돌을 계기로 하자했던 그 合意事項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와서 1回性 事業이다 아니다 論議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次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2次 訪問團 交換과 問題와 관련해서 10次 會談때, 뭐 우리가 拒否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미 充分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狀況으로서는 다같이 세개의 合意事項, 提案을 내놓고 마무리 段階에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段階였기 때문에 구태여 故鄕訪問團 交換事業 안해도 1, 2次 會談이며는 自由來往이 실시될 판인데 거기에 모든 힘을 集中하자 우리가 그랬던거지 反對했던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했지마는 故鄕訪問團은 象徵的인 事業으로 되지마는 藝術團은 이건 象徵的인 事業으로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그러는가 하면 象徵的인 事業으로서 1次訪問團 交換때 두가지 事業을 다같이 重要한 意義를 부여하고 또 그런 意味에서 同數로 실시했고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貴側에서 우리側에 보내온 便紙들에 의하면 좋은 先例를 살려서 해야 된다, 2次訪問團 交換事業을 하자, 이런 便紙를 우리側에 여러차례 보내왔습니다. 便紙原文을 지금 내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거는 象徵的 事業이요 이거는 象徵的인 事業이 아

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藝術團 交換問題는 赤十字線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次元에서 해야 된다. 결국 文化交流次元에서 해야 된다는 主張이겠는데 이 問題도 역시 우리가 1次 때에 두가지 事業에 다같은 地位를 부여하고 進行한 이상, 이제와서 이것은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될걸 했다 이런 말할 必要없다. 그럼 그때 그쪽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認定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問題와 관련해서는 文化交流의 次元이 지금 實施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赤十字가 지금까지 18年동안 北南關係를 改善하는데서 先導的인 役割을 해왔는데 文化交流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좋은 先例를 가지고 이거를 赤十字가 맡아서 하며는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쁜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宋先生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自己爲主, 自己便宜에 맞게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저는 認定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려서 어쨌든 이 問題를 가지고 계속 膠着狀態에 빠져서 曰可曰否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런 意味에서 제가 오늘 劃期的인 修正案을 하나 내겠습니다, 藝術團 規模問題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번 接觸때에 藝術團 規模를 250名으로 줄였댔는데, 다시 200名으로, 藝術團 規模를 200名으로 줄일데 또한 새로운 案을 提起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300名으로 부터 벌써 100名을 縮小한 겁니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는 藝術團 規模問題에 膠着狀態에 빠진 藝術團 規模問題에서 어떻게 하나 合意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誠意를 다하고 있다는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그쪽에서 意見을 내주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强調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 200名 最終線 입니다. 最終線이니까 200名 規模에서 合意를 하자. 그래서 이 問題를 오늘 200名線으로 낙착을 짓고 다음 問題討議로 넘어 갈것을 勸告합니다.

南(宋榮大) : 말씀 다하셨어요?

北(정덕기) : 저 좀 한마디 합시다.

이제 宋先生님 앞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새 案이 없고 전번 提案을 그대로 固執하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좀 遺憾을 表示합니다.

다시금 가지는 接觸에서 그래도 貴側으로서는 이번 接觸을 問題討議에서 成果를 가져오는 이런 劃期的인 契機로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修正案을 앞에서 提起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오늘 會議에서 앞으로 어떤 좋은 案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그 어떤 合意와 解決을 보려는 誠意가 不足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印象을 처음 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제 修正案을 提起를 했습니다, 規模問題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죽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역시 아직도.

우리가 두가지 重要한 事業中에서 어느하나는 忽視하고 어느하나는 優先視하고 하는 立場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式으로 우리가 討議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제가서도 우리가 合意點을 찾기가 困難

합니다.

다같이 중요한 두가지 事業을 놓고 貴側에서는 어느側面을 重要視하고 우리側에서 생각하는 어떤 것은 忽視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이 두가지 事業을 다 重視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겨레들의 當面한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이 問題가 중요하고 또 그들의 苦痛을 最終的으로 풀어 줄 수 있는 團合과 統一의 見地에서 우리 赤十字가 앞장서자 이런 立場에서 생각하게 하는 또 그를 위해서 이바지하게 하는 藝術團 交換事業에 역시 못지 않게 重要하다. 이런 立場에서 우리가 앞으로 討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여기서 하나 明白히 할 것은 아까 宋先生이 마치도 우리가 故鄕訪問團의 訪問地 問題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들이 故鄕으로 가는 問題, 그들이 省墓하는 問題 이걸 우리가 마치도 막고 있는 것처럼 이런 印象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걸 아마 明白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마치도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어떤 問題를 次要視하는 것처럼 그렇게 誤解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問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定한 것은 訪問者들이 故鄕까지 가려는 欲求 이걸 막은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걸 막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要求, 그들의 要求를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相逢問題와 관련해서 討議할때 앞으로 實務的으로 討議하게 되며는 그때 가서 자연히 論議될 問題라고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한쪽에서는 故鄕까지 가자는데 이걸 막는다. 이런 印象으로 이야기되고 하기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訪問者들이 故鄕까지 가서 그들의 家族들과 아주 自由롭게 相逢하고 또 그들의 要求에 따라서 省墓도 하는 이런 要求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主張하고 있는 問題입니다.

1次交換때 訪問者들이 가서 서로 오고 갔을때 우리가 이거를 主張했습니다. 家族들과 함께가서 宿食도 하고 또 省墓도 하고 집에도 가보자. 이거는 우리가 主張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立場에서 變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걸 主張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定한 것은 왜 定했는가? 그들이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 그런 訪問者들이 가서, 거기 자기 故鄕에 찾아가되 우리는 그들이 자기 집까지도 가자는 겁니다, 必要하다면.

南(李峻熙) : 그럼 됐네, 가면 좋지 뭐.

北(정덕기) : 그럼, 그거란 말예요.

우리가 무슨 故鄕까지 가는걸 배제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집까지 간다 그거예요. 平壤과 서울에 있는 家族들 또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 사람들이 가서 자기 故鄕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場所를, 訪問地를 이렇게 定한 것은 앞으로 그런 側面에서 相逢과 가는 問題, 省墓問題 이런 것까지도 다 效率的으로 잘 하자는 意味에서 定한 겁니다.

그런데 貴側에서 案을 定한걸 보게 되며는 故鄕訪問團의 訪問地는 故

鄕까지 간다. 아주 包括的으로 되어 있습니다. 平壤이냐 서울이냐 이거 없이 또 元山이냐 開城이냐 이것도 없이 全朝鮮땅이 다 訪問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北과 南사이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마는 그것이 결국 自由來往 問題에 속합니다. 사실 이 問題를 우리가 당장 實現할 수도 없는거고 또 實踐上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있습니다. 效率的으로 되지 못하고.

우리는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明白히 정해 놓고 그들이 이번 象徵的인 事業으로서의 그들의 相逢問題나 또 故鄕가는 問題나 이런걸 아주 잘 해두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理解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적어도 일단 우리가 規模問題를 讓步案으로 提起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貴側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상 規模問題와 關聯해서는 우리는 貴側을 拘束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100名부터 200名까지 線에서 便宜대로 하십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貴側에서는 지금 100名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案을 좀 한번 이제는 우리가 많이 讓步를 했는데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좀 받아주는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오늘 會議에서 아까 宋先生도 이야기 했지만 北과 南 사이에 지금 期待가 크고 國際的으로도 또 統一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統一의 立場에서 이것을 잘할려고 하며는 藝術團 交換問題를 重視

하고 여기에서 妥結합시다.

北(김광수) : 宋先生님! 同意한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십시요.

南(宋榮大) : 가만히 계십시요. 貴側에서 두 분 이야기 했으면 내가 이야기 해야지.

北(박영수) : 이야기 하십시요.

北(김광수) : 同意한다는 소리 나오겠지요? 난 그것을 期待하는 거예요.

南(宋榮大) : 지금 박선생이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느낌으로는 一方的 主張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선생이 내 말에 대해서 評價하기를 一面的인 主張만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一同 웃음)

그리고 정선생 지금 여러가지 말했는데, 故鄕까지 가는 問題는 自由往來에서 解決해야 될 問題다 하는 이야기 인데요.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10次 會談 때에 제2차 離散家族 故鄕訪問團을 交換합시다, 이듬해 1985年 舊正을 기해서 第2次 故鄕訪問團 事業을 합시다.

北(박영수) : 1986年度겠지.

南(宋榮大) : 1986年 9月, 85年 저 10次 會談때 우리가 提議하기를 그 이듬해…….

北(박영수) : 글쎄, 1986年 舊正때겠지.

南(宋榮大) : 1986年 舊正 때 하자 하니까, 貴側에서 本會談에서 自由往來 妥結되면 저절로 되니까 그럴 必要가 없다 해서 이걸 本會談 課題로 넘겼습니다. 다 速記錄 가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와서 우리가 『訪問地를 서울·平壤으로 局限시키지 말고

故鄕가도록 합시다』하니까 또 貴側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이 問題 역시 本會談에서 自由往來 妥結되면 되니까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 했어요.

잘 보세요. 第2次 故鄕訪問團事業 우리가 提起했을 때 本會談 課題라 그랬고 우리가 지금 故鄕까지 가도록 해주자 하니까 本會談 課題라 그럽니다.

난 貴側의 위와같은 態度에 대해서 좀 理解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하나 指摘해 놓고.

다음에 이제 重要한 것이 박선생이 藝術團 規模에 대해서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200名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意見을 말하기 전에 貴側의 意思를 確認할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質問하고자 하는데 簡單히 答辯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案을 내놓을 것이니까요.

藝術團 200名이라고 하는 것이 雙方 각기 200名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藝術團 200名 해놨는데 雙方 각기 200名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그것을 分明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北(박영수) : 그거는 雙方 각기 200名 하면 좋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200名 하기 어렵다며는 그쪽에서는 100名해도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宋先生님 말씀하는데 10次 會談 때 故鄕訪問團 그 問題 …….

南(宋榮大) : 아 가만 있어요. 내가 또 質問만 했으니까 對答했지 않았습니까? 또 이야기 할께요. 本質問題에 들어가야지.

北(박영수) : 그 다음엔 내가 이야기 하지.

南(宋榮大) : 期待를 해보시라고, 時間있으니까.

北(박영수) : 그러지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整理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貴側에서 오늘 修正提案內容은 藝術團 規模를 각기 200名으로 하는 것이 提案이고 만약 그게 우리側에서 어렵다하며는 貴側은 200名이고, 우리側은 100名 이 사이에서 便利하게 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北(박영수) : 예, 예.

南(宋榮大) : 그런데 우선 200名이라고 하는 數字는 또 貴側에서는 融通性을 發揮했다고 말하고 있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必要 以上의 數字라고 생각합니다. 必要以上의 數字다.

그런데 일단 지금 會談이라는 것이 雙方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뭐좀 融通性을 發揮한다고 하며는 또 相對側에서 融通性을 發揮가 되겠지요.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그런데 日前에 박선생이 무어라 했느냐 하며는 마지막 일어나면서 『藝術團 規模問題하고 實況中繼問題 두가지만 남았다. 이것 合意되면 나머지는 30分內에 끝난다』이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나는 이 點을 相當히 留意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그말을 한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妥結을 하는 마당에 둘을 같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北(박영수) : 그럼 말씀하십시요.

南(宋榮大) : 내가 그런 뜻에서 修正案을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자꾸 정선생 貴側에서만 修正案을 냈다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藝術團을 南北 각기 100名으로 構成하는 前提에서 相對側 藝術團 公演을 TV와 라디오로 實況中繼한다』 相對側 藝術團 公演을 TV와 라디오로 實況中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時間 끌지 말고 이 두개를 묶어가지고 一括的으로 合意를 합시다.

南(李柄雄) : 우리가 劃期的인 案을 냈는데…….

北(박영수) : 案 냈습니까?

南(李柄雄) : 重要한 案이지 그럼.

北(정덕기) : 訪問地는 우리 案대로 하고?

南(宋榮大) : 아니, 藝術團을 南北 각기 100名으로 構成을 하고 그리고 相對側 藝術團 公演을 TV와 라디오로 實況中繼한다 그겁니다.

北(박영수) :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고, 答辯만 해주십시요,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내 意見을 이야기 할테니까.

訪問地 問題는 平壤과 서울로 그저 確定된 걸로 봐야죠?

南(宋榮大) : 아니.

北(박영수) : 그건 따로 있습니까?

南(宋榮大) :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側 지난번 提案이 規模問題 이걸 다 討論하고 그 다음에 規模問題 以外의 問題 많지 않습니까? 訪問地라든가 藝術團 交換公演이라

든가 相逢方法이라든가 其他 細部推進節次 등등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規模를 除外한 餘他問題…….

北(박영수) : 그건 一括的으로 하자.

南(宋榮大) : 一括的으로 하는데, 一括的으로 하는데 藝術團 公演問題도 先例대로 한다고 하는 前提 위에서 우리가 訪問地를 서울·平壤으로 讓步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趣旨대로 하면 이 中繼問題도, 中繼問題도 餘他問題 속의 하나로서 訪問地 問題와 함께 討議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貴側에서 지난번에 特別히 實況中繼 問題를 갖다가 이걸 强調를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일단 實況中繼하고 規模는 이런 式으로 해서 매듭을 짓고 나머지 餘他 모든 問題는 訪問地를 包含해서 先例대로 一括討議 하자.

北(박영수) : 그러니까 이 問題만 合意되면 訪問地 問題도 平壤과 서울로 된다 그거겠지?

南(宋榮大) : 다른 餘他問題까지 妥結되는 걸로…….

北(박영수) : 이 問題 이제 새로운 修正案 내놓았다는 것이, 이게 만약 이 線에서 合意가 이루어 진다면 訪問地는 平壤과 서울로 된다 그걸 前提로 하는 거지요?

南(宋榮大) : 그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藝術公演과 關聯해서 公演內容, 公演內容, 公演回數, 「프로그램」 事前交換 이런 問題에 있어서 雙方間에 意見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問題에 관해서도 先例대로 한다 하는 前提위에서 訪問地를 서울·平壤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南(李柄雄):合意도 쉽고 그러면 여러가지 討議할 것도 없고 合意自體로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北(박영수):그러니까 藝術團을 각기 100名으로 構成하는 前提下에서 相對側 藝術公演을 TV와 라디오로 實況中繼 한다. 그것이 修正案 이지요?

南(宋榮大):예, 그렇습니다.

北(박영수):提案 自體는 모를 것 없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藝術團은 100名 以上 못올리겠어요?

南(宋榮大):아니 내가 지금까지 누차 說明을 했는데 왜 그 質問을 하는지 理解가 안갑니다.(一同 웃음)

北(박영수):아니 그말에 대해서 말한다며는 내가 200名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說明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藝術團을 100名 以上 못내리겠는가? 이것 요지부동입니까?

南(宋榮大):100名 以上 늘린다는 말입니까?

北(박영수):늘인다!

南(李柄雄):그러면 200名 以上 내려올 수는 있죠?

200名 以上 좀 내려올 수도 있죠?

北(박영수):아니 물음에 對答하면 안되나?

南(李柄雄):아니 그러면 같이 묻자고.(一同 웃음)

北(박영수):우리 저 그러면 한 問題씩 討議를 합시다.

南(宋榮大):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北(박영수):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조금더 마저하고요.

南(宋榮大):하세요.

北(박영수):藝術團 問題인데 결국은 이것 참 우리 정덕기代表 이제

理解할 수 있을 만큼 얘기가 되는 問題이고 하지마는 이 藝術團 交換 이것을 자꾸 副次的인 것으로 하지 맙시다.

내가 그걸 부탁드립니다. 宋先生側에 부탁을 드립니다.

南(宋榮大) : 알겠습니다.

北(박영수) : 藝術團 問題를 자꾸 次要視하지 말자.

이거는 또 歷史를 캐지 맙시다. 뭐 저 구구해 지니까. 절대로 藝術團을 副次視하지 말고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을 同等한 地位에 놓고 합시다.

그런 意味에서 藝術團을 좀더 늘이자. 한가지좀 그 이야기를 說明을 해드리면 그 前에도 한번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지금 藝術人, 우리가 2次입니다 2次 1次가 아니라. 1次 때는 처음으로 하는 事業이니까 小規模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나 2次 다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노래·춤 몇가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南쪽의 藝術이 지금 다 綜合的인 藝術들이 있을거구 발전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뭐 北에서도 지금 藝術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 北에서는 지금 文化·藝術의 大 復興期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며는 오래간만에 藝術團을 交換하는 以上 北에서는 北에서 도달한 最高의 水準의 藝術을 南쪽사람들한테 갖다 보여주고 또 南쪽에서 자기들이 도달한 最高에 水準을 北에 와서 보여 주도록 하자.

그러자며는 아마, 내가 생각하건데는 南쪽에 藝術人들도 100名이 아니라 더 가겠다고 할 겁니다. 난 그걸 反對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南쪽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交流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北하고 接觸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實現은 물론 지금 안되고 있는데.

北에 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南쪽에 4千萬 치고 난 그거 마다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나 藝術團을 交換하는데 南쪽 사람들이 자기네 뭐 노래 몇개, 춤 몇 種目 가지고 와서 보여 주는것 보다는 자기네 準備한 것 「자 우리가 이만큼 發展했수다」와서 北의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또 北에서는 「우리가 藝術이 이만큼 發展했수다」 南쪽사람들 한테 보여주고 아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바로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結果가 나오겠는가? 北과 南 사이에 지금 誤解와 不信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우리 앉은 사람들도 相對方이 무슨 案을 하나 내놓으면 이거 또 그 뒤에 이것이 또 뭐 있냐 이런걸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不信입니다.

이것이 뭐 한두해 쌓여 있는것도 아니고 무려 장장 45年, 江山이 네 번반 변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不信이 累積되어 왔거던요? 이걸 풀어주는데서 이 藝術團公演이 重要하다. 몇사람 往來하는 것 보다 이것이 重要하다.

이 藝術團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하 우리가 45年동안 隔閉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보니까 역시 갈라져 있지마는 하나의 핏줄을 이은 同族임이 틀림이 없다. 또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반드시 統

一을 해야 할 同族이로다. 이거를 確固하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藝術團 規模를 원래는 300名 입니다, 우리 藝術人들은 300名, 『제발 이번에 나가서 어떻게 南側 代表들을 좀잘 이렇게 納得을 시켜서 300名 合意하게 해 주시오』 여러차례 내가 提起를 받았습니다. 組織的으로나 個別的 藝術人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300名으로 했댔는데 뭐 이것이 뭐 合意가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50名, 어떻게 250名으로 해 볼테니까 당신네들 그걸 가지고 한번 最大로 해 보십시요. 그리고 전번에 250名 냈는데 또 이것이 合意 안되니까 난 이제 200名 오늘 불렀으니까 또 올라가서 그저 이거 때문에 合意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200名으로 讓步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200名 가지고 한번 最大로 해 보십시요 하고 내가 우리 藝術人들 한테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南(李峻熙) : 저기 우리 박선생!

北(박영수) : 그래서…….

南(宋榮大) : 가만, 얘기할게 있어요.

北(박영수) : 난 그걸 어떤 前提로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시다 藝術團을 各其 200名으로 構成하는 前提下에서 相對側 藝術公演을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로 中繼한다. 이렇게 하지요?

南(李柄雄) : 아니, 왜냐하면 화가 날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할께요.

사실 우리 放送은 지난번 우리가 1次 때도 우리는 세번 錄畵放送을 했어요. 전부다.

그러나 以北에서 錄畵放送 한다고 했는데 放送 못봤어요.

北(김광수) : 우린 했어요.

北(李柄雄):뭘, 하긴 뭘, 내가 못봤는데.

그래서 事實은 그런 問題가 우리가 쭈욱 어려운 問題가 있지마는 우리가 이 重要한 것을 讓步했는데 貴側에서 오늘 매듭을 지어야지.

또 나 200名밖에 못하겠어 하고 올라가면 언제 解決을 합니까?

南(宋榮大):자, 제가 좀 이야기 할께요.

南(李柄雄):準備도 해야하고 그러니까 내리라고, 조금더 내려서…….

北(박영수):내가 다시 그럼 修正案 하나 내겠습니다.

南(宋榮大):예. 말씀하세요.

北(박영수):오늘 우리 그렇게 하면 몇번째 讓步하는 건가?

北(김광수):하하, 連續 그러는구만.

北(박영수):연거푸 讓步하는거요. 讓步예요, 연거푸 讓步예요.

南(李柄雄):이게 다 좋은 일이예요.

南(宋榮大):우리가 지금 實況中繼라고 하는 진짜 큰 讓步했습니다. 이건 내 한마디만 얘기를 할께요.

北(박영수):아, 예. 말씀하십시요.

南(宋榮大):事實 우리가 보기에는 이 實況中繼 問題는 이번 2次 訪問團 事業의 本質問題로 보지 않습니다.

本質問題는 역시 故鄕訪問團이예요.

北(박영수):아니, 아니. 나 그런 말이면 듣지 않겠어요.

南(宋榮大):가만 있어요! 이건 枝葉的인 問題로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貴側에서, 貴側에서 이거 重要하다 重要하다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肯定的 面에서 받아 주겠오 하는것 아니예요?

南(李柄雄):박단장선생! 修正案을 좀 내십시요.

자, 예. 오늘 끝냅시다. 거 뭐 修正案…….

北(정덕기) : 아, 거 100名하면 實況中繼할 수 있고 200名하면 못하고 그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南(李柄雄) : 修正案을 내라고 예. 修正案을 내서…….

北(박영수) : 修正案 자꾸 내겠다는데 뭘 거기다가 또 무슨 藝術團은 副次的인건데 뭐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南(李柄雄) : 그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北(박영수) : 거 宋先生 또 그런 面에서는 상당히 좀…….

南(李柄雄) : 本人이 꺼내니까 얘기가 자꾸 되지요.

北(김광수) : 案을 낸 다음에 案을 내야 뭐 빨리빨리 討論될거 아녜요?

北(박영수) : 그래서 아 새로운 修正案을 하나 또 내지요.

내 전번에도 말했지요? 저 讓步 繼續하는게 우리 社會에서 美德의 하나가 뭐인가 하면 「讓步하는 法부터 배워라」그게 지금 하나의 美德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런걸 尊重하는 意味에서 우리 藝術團 지금 300名입니다. 그건 合意事項이고…….

北(김광수) : 故鄕訪問團…….

北(박영수) : 아, 故鄕訪問團 300名이고 우리 提案한 藝術團 200名입니다. 그리고 隨員 合意된게 40名이고 記者 30名입니다. 여기에 團長 1名입니다. 總 571名입니다.

571名 規模를 合意를 하고, 總規模를 合意를 하고, 總規模 571名으로 合意를 하고 그 案에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規模는 各其 便利한 대로 定한다.

南(李柄雄) : 4次하고 똑같은데?

北(박영수) : 아니야, 다 달라요.

南(李柄雄) : 뭐가 달라요?

北(김광수) : 아니, 아니 다르지.

北(박영수) : 總規模를 定하고. 總規模를 定하고…….

北(정덕기) : 좀 생각을 해 보십시요.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거 다릅니다. 貴側의 立場이 充分히 反映이 됐어요.

北(박영수) : 總規模를 定하고, 總規模를 定하고 그 안에서 各其 便利한 대로 한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故鄕訪問團 300名, 藝術團 200名, 나머지 問題는 合意됐으니까.

이렇게 우린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故鄕訪問團을 400名 하고 藝術團을 100名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南(宋榮大) : 알겠습니다.

北(박영수) : 알겠어요?

南(李柄雄) : 相互原則에 어긋난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北(박영수) : 相互原則은 571名 總規模에서 相互主義 原則에서 한다.

南(李柄雄) : 글쎄 그동안에 모든걸 숫자를 같이 했는데 지금와서 그게 틀려지면…….

南(李峻熙) : 그 뜻은 알겠는데…….

北(박영수) : 趣旨는 알만하죠?

南(李柄雄):그럼 必要하다면 우리가 指定한대로도 關係없어요?

北(박영수):그건 이미 合意했으니까.

南(李柄雄):그러니까 내 얘기가 意見이 合意된건…….

北(박영수):아, 柄雄先生님! 저 峻熙先生이랑 하고 있는데 充分히 反映하고 있습니다.

南(李柄雄):아니, 趣旨는 알아요.

南(李峻熙):趣旨는 알겠는데 이건 李柄雄代表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한번씩 그게 擧論됐던 건데.

北(박영수):이거 옛날에 擧論됐던거 아니예요.

南(李峻熙):아니, 비슷한 것이 擧論됐죠, 이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各己 便利한대로 藝術團規模를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하는 것과 같은 式의…….

北(김광수):總數字가 一致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總數字가 一致된단 말입니다.

南(李峻熙):글쎄, 그런데 지금 이 問題는 우리가 서로에 누차 얘기한 藝術團規模問題를 가지고 지금 200과 100을 놓고 얘기를 하는 마당에 또 餘他 다른데까지 派及시켜 複雜하게 만들지 말란 그 얘기란 말이예요.

우선 자꾸 壓縮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妥結해서 나아가야지 이거 지금 200 내놓고 100 내놓고 이거 좀 뭐 꼭 100아니면 안되겠냐는 하는 얘기를 주고 받다가 이거 또 무슨, 規模는 뭐 藝術團하고 故訪團 規模 같이 합쳐서 全體 總數 해놓고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複雜해진다 그것이죠.

北(박영수) : 우리가 좀 그걸 說明을 조금더 하면…….

南(李柄雄) : 아니, 說明 더 할 것 없이…….

南(宋榮大) : 내가 말할께요.

北(박영수) : 아니, 내가 요 提案에 대해서 說明을 조금더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놓은 趣旨는 뭐인가 하면 그쪽의 立場을 充分히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例하면 우리는 원래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을 같은 地位에 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그런 立場으로부터도 우리는 後退한 겁니다. 藝術團을 200名, 故鄕訪問團보다 줄였으니까.

그러나 그쪽에서는 故鄕訪問團이 많아지겠죠? 總規模 合意하고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면 藝術團을 늘이지 않는 以上.

그렇다면 그쪽에서 故鄕訪問團이 主고 藝術團이 副次的이다 하는 그쪽 主張을 그쪽에서는 또 貫徹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든지 合意할 수 있는 案이다.

南(李峻熙) : 얼핏 보아서는 이 修正案은 모양은 그럴싸 한데 너무 複雜하다 이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南(李柄雄) :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또 여러가지 慣例問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가지 勘案을 해서 숫자는 숫자대로 같이 해야지…….

南(李峻熙) : 아니 지금 妥結을 보자고 지금 意見을 좁히다가 또 엉뚱한 問題를…….

北(박영수) :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거지요.

南(宋榮大) : 아, 내가 좀 이야기 할께요.

南(李柄雄) : 박단장님이 腹案을 가지고 오고도 얘길 안하고 있어.

南(宋榮大) : 지금 일단 修正案을 내놨으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할께요.

貴側案을 보면 貴側 構成은 故訪團 300, 藝術團 200 두개만 합치면 500이죠?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우리側 構成은 故訪團 400, 藝術團 100 合치면 500. 그러니까 이 總數面에서는 同等하다 하는 것이 아마 貴側의 意見같은데 總數面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여기 하나의 問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提起한 바와같이 이 規模問題를 定하는데 있어서는 이 相互主義가 철저히 具現이 돼야 된다 하는 立場인데 總數面에서는 同數니까 相互主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北(박영수) : 보일지 모르는게 아니라 보이는 것 맞죠.

南(宋榮大) : 그런데 重要한게요, 相互主義라고 하는 것은 總數面에서 뿐만 아니라 同一性格의 事業間에도 適用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故鄕訪問團 하게 되면 南의 訪問團이든 北의 訪問團이든 性格이 같습니다.

藝術團 南의 藝術團이든 北의 藝術團이든 性格이 같아요.

同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相互主義에 의한 同數原則이 適用되야 됩니다.

그런 觀點에서 보면 貴側이 내놓은 이것은 嚴密한 意味에서 相互主義엔 符合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規模問題하고 實況中繼問題 이걸 지금 우리 같이 妥結하자는 立場인데 實況中繼에 대해서 우리가 대勇斷을 내렸어요.

아마 오늘 박선생을 비롯해서 세분 돌아가게 되면 크게 歡迎받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엔 表彰받을 거예요. 큰 賞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重要한…….

北(박영수) : 그런, 그런…….

南(宋榮大) :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重要한 實況中繼에 대해서….

北(박영수) : 그런 조금 禮儀에 어긋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南(宋榮大) : 가만있어요! 뭐 立場 어렵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합시다. 아까 박선생이 말이죠 그 藝術團 各其 200名 前提위에서 實況中繼 하자 그걸 내놨잖아요?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우리가 거기서부터 問題를 풀어나가자 그거예요.

이게 지금 雙方이 비슷하게 接近돼 가는데 갑자기 엉뚱한데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討論을 整理해 가지고 거기 藝術團 各其 200名 前提위에서 實況中繼한다 그쪽에서 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側은 뭐라고 했느냐? 藝術團 100名을 前提로 해서 各其 實況中繼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게 뭐냐 그거예요. 結局.

北(박영수) : 100, 200.

南(宋榮大) : 100과 200 差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問題를 解決해 나가자 그겁니다.

共通分母 아니겠어요?

北(박영수) : 왜 이제 새로운 案을 내놨는가?

그쪽에서는 100以上 도무지 못올리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야말로 줄이고 줄여서 이제는 200以下는 안되겠다.

그런 立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200으로 올리면 簡單합니다.

南(李峻熙) : 100으로 내리면 또 簡單하고…….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200以下는 도저히 안되겠는데.

南(李峻熙) : 안될 것 뭐 있어요?

北(박영수) : 그러면 그以上 100以上 더 못올리겠는가?

그거 좀 생각해 보십시요.

南(李柄雄) : 우리도 考慮를 좀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硏究를 하도록 거기서 좀 내려라 이것입니다.

北(박영수) : 그럼 이거 硏究課題로 남깁시다.

南(李柄雄) : 남기긴? 언제 가서 해요? 이제 時間이 없는데 뭘 남겨요?

北(박영수) : 그런데 뭐…….

南(李柄雄) : 내려야지, 내려라고요.

北(박영수) : 案을 내세요. 案을 내라 이거요. 빨리 案을 내야 돼.

南(宋榮大) : 자 그럼 박선생! 이렇게 합시다.

「우리 100名과 200사이에서 서로서로 한발자국씩 讓步해서 共通點을 찾는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前提를 해놓고 말이죠.

前提해 놓고 내가 하나 案을 낼께요.

자 그러면 우리가 貴側에서 藝術團 좀 많이 하자는 것 考慮해서 120名, 120名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北(박영수) : 허허허…….

南(宋榮大) : 우리가 지금 50名에서부터 이것 120名까지 올라왔어요.

南(李柄雄) : 하여튼 좀 내립시다.

北(박영수) : 얼마 늘였습니까? 50名에서부터 얼마 늘였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또…….

南(宋榮大) : 아니, 가만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深思熟考한 끝에 내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實況中繼 좋습니다. 또 이 藝術團 數字 이렇게 늘여주겠습니다.

北(김광수) : 내가 한마디 좀 이야기 하겠어요.

南(李柄雄) :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아니 왜냐하면.

南(宋榮大) : 박선생! 일전에 讓步하는 것이 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讓步 많이 했어요.

北(김광수) : 내가 한마디 할께 좀 들으라요. 내가 한마디 이야기를 할께 좀 들으라요.

北(박영수) : 우리 김광수代表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北(김광수) : 지금 雙方에서 意見差異가 藝術團 規模問題에 대한 것이 差異가 있습니다. 實況中繼問題도 基本的으로 合意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前提條件으로 붙여 놓았지만 어떻든 規模問題가 妥結되면 그것은 合意볼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可能性으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藝術團 規模問題에서 貴側은 100名으로부터 더 늘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20名을 修正案으로서 더 늘이겠다는 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로서는 300名이 最低數字로 처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雙方이 案이기 때문에 折衷해야 合意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50名으로 내놓았다가 다시 200, 200線 以下로는 우리 藝術公演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雙方이 自己案만 主張한다면 合意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總規模에서 同數로 하고 우리는 最低 200名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 200名線 以下로 떨구기가 困難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代身 南쪽에서 故鄕訪問團을 主라고 하니까 100名을 더 늘여달라. 故鄕訪問團을 100名 늘여서 100名이 더 平壤에 들어오라.

우리는 그만큼 故鄕訪問團이 못나가고 藝術團을 南에서 100名 들어오는 代身 200名이 나가겠다. 이런 方法으로라도 妥結을 보자. 이게 合意를 보자는 線입니다. 어떻게든지 合意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合意봐야지 最低線이라는 것이 어쩌면 最高線, 最低線 딱 限界가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妥結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妥結을 하기 위해서는 方途를 찾아야 되겠다. 方途를. 찾는 方途가 總規模에서 互相性의 原則에 맞게하고 그 안의 內容에서는 다소 差異를 두고래도 實行을 하자. 이게 우리의 趣旨입니다.

南(宋榮大) : 아, 그러니까 어느쪽 입니까?

내가 지금 分明히 묻겠는데 하나는 各其 同數로 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便宜主義的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어느쪽 이예요?

北(박영수) : 고거 그 問題는 우리가 總規模만 合意를 하고 그 內容을 서로 便利하게 하자고 했던 것은 原來 宋先生이 처음부터 提起를 할 때 故鄕訪問團 300名, 藝術團 50名 原來 不均等하게 提起했단 말입니다.

同數가 아니예요, 그때. 故鄕訪問團과 藝術團 同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300名, 藝術團 300名 同時에 同數로 提起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宋先生 相互主義 原則에서 또 「同一性格의 問題에서는 相互主義原則이 同時에 適用되어야 된다」는 그 主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건데는.

南(宋榮大) : 왜, 왜 못합니까?

北(박영수) : 1次때 提案事項에서 벌써 이것 300名, 50名으로 提案을 했으니까.

우리는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을 同數로 해야 된다. 이것을 一貫하게 主張을 했는데, 宋先生은 벌써 이미 提案上에서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을 偏重을 두었거든요?

南(宋榮大) : 아, 그것은 큰 誤解예요. 내가 그것은 바로 잡아 드릴께요.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그거 充分히 理解합니다.

南(宋榮大) : 가만있어요! 우리가 1次 提案 때…….

北(박영수) : 그러니까 故鄕訪問團은 300名, 故鄕訪問團 300名…….

北(정덕기) : 提案上 나온 것이니까.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誤解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北(박영수) : 藝術團을 50名으로 하자. 그쪽에서 그런 同數로 하자는 것을 말했죠.

南(宋榮大) : 아니 그게 조금 傳達이 잘못 되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 規模를 提案할 때 故訪團 300, 藝術團 50 이것을 내놓았을 때 南北 各其 이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南北 各其 350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南쪽도 故訪團 300, 北쪽도 故訪團 300名 하면 이것은 同一性格의 事業 아닙니까? 同一性格의 事業에는 同數가 適用되는 거예요.

또 南쪽도 藝術團 50, 北쪽도 50하면 이것도 同一性格의 事業이기 때문에 同數가 適用돼요.

그러나 故訪團 300하고 藝術團 50 할 때에 이것은 差異가 있죠. 300하고 50에 差異가 있죠?

北(박영수) : 그래.

南(宋榮大) : 왜 差異가 있느냐? 相異한 性格을 가진 事業이기 때문에 差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同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同一基準이 適用이 되어야 되고, 同數가 適用되어야 되고 相異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差等이 適用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故訪團 300, 藝術團 50을 내놓은 거예요.

北(박영수) : 아, 그러니까 이제 그 問題는…….

南(宋榮大) : 그러니까 그것을 分明히 理解하고 말씀하세요.

北(박영수) : 예, 거 問題는 뭣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各其 原來는 同數로 하되 이번에는 藝術團을 조금 늘여서 크게하자. 그래서 300, 300을 내놓았는데 지금 이 時刻까지도 宋先生은 故鄕訪問團이 主고 藝術團은 副次다. 이런 立場에 지금 서있다 그말 입니다.

내가 지금 그 宋先生의 말씀을 죽 들으면서 어떤 印象을 받는가?

藝術團을 왜 그렇게 次要視하는가? 왜 우리가 1985年度에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同等한 地位에 놓고 같은 意義를 賦與해서 進行했는데 왜 이번에 와서는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을 그렇게 主從關係로 만들어 놓았는가?

이 主從關係에 대해서 말한다면 1985年 7月달부터 시작된 1次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위한 實務代表接觸 세분 나왔지요? 우리는 그때 여기있는 나 혼자지마는 뭐 내가 그때 團長으로 나왔으니까 뭐 그건 다 아는 事實이고.

그때 「故鄕訪問團이 主고 藝術團이 從이다」 그 論理를 宋先生이 이미 그때 여러가지로 論理를 展開했거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合意가 되었느냐? 여기서는 主·從이라는게 있을 수 없다. 同等한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0, 50 同數로 合意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왜 그때 그렇게 合意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또 主·從關係를 設定하느냐? 나는 여기서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問題를 놓고 내가 한가지 조금 遺憾스러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1次 「訪問團」 交換때에 내가 서울에 나갔습니다.

내가 平壤에 들어와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藝術團公演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쪽에서 報道를 했습니다.

報道時間에 簡單簡單히 報道를 하면서 評論家들을 내세워서 어떤 論評을 가했는가? 우리 藝術團에 대해서. 『北의 藝術團公演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로시아」式이고 또 印度式을 모방한 것이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藝術公演 內容을 보면 民族傳統的인 歌舞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건 새로 創造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

터 노래해오고 춤을 추어오던 것입니다.

노래는 「까투리타령」…….

南(李峻熙) : 박선생! 이야기를 자꾸 옆으로 끌고 가지를 말고…….

北(박영수) : 아니, 아니. 가만있어.

南(李柄雄) : 그것 왜 딴데로 끌고 갑니까?

南(宋榮大) : 아니, 1985年의 일을…….

北(박영수) : 아니, 이거 이게, 내가…….

南(李柄雄) : 貴側에도 그런것이 있었어요.

北(박영수) : 내가 이제 그쪽의 宋先生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그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藝術團公演에 대해서 相當히 어떻게 이걸 意義를 弱化시키기 위한 그런 報道姿勢가 보였다 그말 이예요.

南(李峻熙) : 그런데 박선생! 내가 그 뜻을 알겠는데…….

北(박영수) : 그래서 이걸 왜 藝術團公演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次要視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根本, 宋先生 根本 지금 머릿속에 나타내진 않고 있는데 그 생각이, 생각에 대해서 이것 좀 問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南(李峻熙) : 그래 박선생! 내가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 藝術團, 이제 故鄕訪問團하고 藝術團을 뭐 主從關係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우리 立場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쪽에서 理解하고 있는 그것은 分明해요.

그러나 지금 이 主從關係라고 하는 問題가 우리가 藝術團의 規模를 100名으로 하는 그것이 지금 박선생 이야기하는 그것과 꼭 그렇게 맞

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를 參考로 말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故鄕訪問團의 數字는 300名이라는 線에서 서로 意見의 一致가 있었죠?

北(박영수) : 그럼요.

南(李峻熙) : 예, 그런 狀況에서 지금 박선생이 藝術團 規模를 200名으로 하는 얘기를 提起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故鄕訪問團하고 藝術團과의 差異에는 數値의 差가 있지요?

北(박영수) : 그렇지요.

南(李峻熙) : 그러면 그것이, 그 數値의 差異가 나타내는 것이 故鄕訪問團을 主要視하고 藝術公演을 次要視하는 그런 뜻에서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北(박영수) : 예.

南(李峻熙) :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故鄕訪問團 300名과 藝術公演團 100名이라는 그것도 지금 박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이 解釋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主는 故鄕訪問團이고 從이 藝術團이니까 우리가 100名을 내놓고 固執을 부린다 하는 그렇게 解釋을 하면 그러면 박선생쪽에서도 300名과 200名을 내놓은 것도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지요.

北(박영수) : 그것 내가 거기에다 答辯을 드리면, 내가 왜 그 主從關係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數字問題도 있지만 지금 宋先生 發言에서 一貫하게 『故鄕訪問團이 主고 藝術團은 從이다』 이런 얘기를 展開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南(李峻熙):그것은 글쎄 좋아요.

北(정덕기):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北(김광수):立場上 그렇게 하지 말자.

南(宋榮大):그 뜻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北(박영수):알고 있는데 자꾸 主從關係를 이야기를 하니까.

南(李柄雄):박단장이 지금 거기에 包含된 이야기도 말씀 안해도 우리가 다 뜻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主從關係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藝術團 人員에 관한 問題를 일단 合意를 하고 또 그리고 問題를 解決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數字를 200에서 우리가 100을 이야기 했고 또 우리는 지금 다소 考慮도 돼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좀 내려가지고 合意를 봅시다.

南(宋榮大):그러니까 조금前에 李峻熙代表가 말한 것을 좀 留意를 하세요.

北(박영수):내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藝術團을 그쪽에서 120名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50名으로부터 120名, 70名 增加시켰습니다.

南(李柄雄):倍가 넘지요, 우리는.

北(박영수):아이 倍이고 뭐이고 70名 올렸는데 만약 宋先生 繼續 하나의 뭐 信心化되다시피한 이 相互主義原則에 따르면 우리는 300名으로부터 200名, 100名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많이 줄였습니다.

南(李柄雄):半도 안되요, 지금.

北(박영수):그런 意味에서는 그 讓步가, 讓步面에서는 우리가 더 그쪽보다 讓步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宋先生! 自己가 讓步해서 兄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面에서는 우리가 더 讓步를 했다.(一同웃음)

우리는 100名을 줄이고, 100名을 줄이고 그쪽에서는 70名을 올렸는데…….

南(李峻熙):그래 내가 좀 이야기 하나 하지.

지금 내가 보아 하니까 박선생은 뭐야 國民學校 다닐 때 高等數學은 안하셨던 모양이예요.

「퍼센테이지」따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 뭐 낱자 數學만 가지고 100名, 70名이지만 그것이야 100이 70보다 크지요.

北(박영수):國民學校때는 高等數學을 안하지 아무래도…….

南(李峻熙):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안다닌 모양예요.(一同웃음)

南(李柄雄): 100% 以上 늘였거던요?

北(정덕기):우리가 지금 藝術團을 어떻게든 100名씩 줄인 것은 큰 讓步지요.

南(李柄雄):그 藝術團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合意를 보아야지요.

北(김광수):한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하자 이겁니다.

南(宋榮大):자, 簡單하게 합시다.

北(김광수):藝術團 規模問題, 이것도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簡單히 얘기합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쪽에서 藝術團 規模를 120名으로 했으면

좀더 늘리자 이런 立場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되면 우리 이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藝術團이 最低 200名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立場인데 藝術團을 좀 늘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만 有利하고 南側에서는 不利한가? 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藝術團規模를 좀 크게 한다고 해서 어느쪽에만 有利하고 어느 쪽에는 不利하다 그런 立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藝術團規模를 좀 늘리게 되면, 크게하게 되면 양쪽이 다 種目도 多樣한 種目을 가지고 公演도 좋은 프로 公演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希望과 信心을 주자는게 藝術團을 交換하는 根本目的의 하나 입니다. 또 北과 南의 人民들 사이에도 互相 誤解와 不信을 가시자는 이런데도 重要한 目的이 있고 이렇게 할려 하게되면 藝術團規模를 크게하면 좋으면 좋았지 크게 나쁠것이 없다.

또 다른 한개의 側面에서 얘기하고 싶은것은 藝術團規模를 크게 해서 좋은 公演을 하면 우리 赤十字團體들의 權威도 높아진다. 좋은 公演을 할 수 있도록 赤十字團體들이 周旋을 해서 흩어진 겨레들에게 信心을 주면 赤十字人들이 權威가 높아지면 北이나 南이나 다같이 赤十字人들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점도 있고 또 赤十字團體들간에 하는 이 事業이 다른 모든 事業에 先鋒的 役割을 하는데도 크게 하는것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 이런 見地에서 놓고 보아도 藝術團規模를 좀 더 크게 하자.

이렇게 하면 다같이 좋은데 뭐 때문에 적게하는 方法으로 하겠는가? 좀 크게 하는 方法으로 하자.

南(李峻熙):광수先生, 지금 우리가 原論的인 이야기를 자주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건데 우리가 지금 200과 100사이에서 提起하는 問題에 우리가 120 意見을 提示했는데 여기 줄여서 그쪽에서도 우리 立場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前後事情에 우리 立場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立場을 좀 勘案해서 相對方 立場도 尊重해줘야할 必要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立場을 尊重해 주셔서 혹시 우리가 120 내놓은 숫자가 우리가 내놓은 숫자라서 그게 좀 마땅치 않다면 우리가 120을 안부를테니까 그쪽에서 120을 부르시든지 그럼 우린 좋소 할테니까. 너무 우리 그런데 形式的인 拘碍 받지말고…….

南(宋榮大):이렇게 합시다. 우리 討論을 좀 整理하기 위해서 原論的인거 얘기하지 말고 本質問題 가지고서 結論냅시다.

역시 雙務會談이니까 두 主張이 팽팽히 對立되었을 때는 中間 折衷도 찾아야 되잖아요? 留念하세요. 中間折衷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에서 120, 20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貴側에서도 거기에 相應하는 融通性을 보여 주시면 또 우리도 거기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北(박영수):아니 그래서 우리가 두번째 修正案으로 내놨던 그것도 硏究를 해 보십시요.

總規模를 相互主義原則에 따라서 同數로 하고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그러면 그쪽 立場을 强化해 주는거로 됩니다. 우리가 그런面에서는 그쪽에 상당한 정도로 讓步를 한 겁니다. 그것도 硏究를 해 보십시요.

南(宋榮大):그건 아까 내가 얘기 했어요.

南(李柄雄):그건 거의 뭐 별로 差異가 없는 얘기예요.

北(김광수) : 아니예요.

南(宋榮大) : 우리도 나오면서 그정도 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北(박영수) : 내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一同웃음)

南(宋榮大) : 박선생, 「어」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南(李柄雄) : (北側代表에게 「메모」가 傳達되는 것을 가르키면서) 좋은 消息이 왔나 좀 봅시다.

北(박영수) : 宋先生 뭐 有能한다는건 내가 다 알고 있는 事實인데.

南(李柄雄) : 좋은 消息이 왔나 좀 보고서 하시지요.

北(정덕기) : 우리 박단장동지가 지금 사실 부탁 意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200 좀 해 줄수 없겠나? 뭐 오래간만에 부탁했지 뭐. 우리 박단장이 會談에 나와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200 할 수 없겠나 그러다가 그거 못한다니까 정히 그러면 便宜主義的으로 그럼 해 보자 그러면서 互相性에 맞게, 이거야 뭐 우리 立場도 봐줘야 하지 않습니까? 貴側立場도 서로…….

北(박영수) : 얘기를 좀 整理해 봅시다. 整理하기 前에 한가지 좀 얘기해 보고 싶은거는 藝術團을 늘이자. 實況中繼問題는 이제 거의 合意에 到達한거고 故鄕訪問地問題도 이제 合意됐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내 뜻은 압니다. 또 解明할려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요.

第一問題는 藝術團 規模問題인데 그쪽에서 한번 國民投票 부쳐보면 어때요? 藝術團 規模를 한 200名으로 하는데 100名으로 하자는 案과 200名으로 하자는 案이 提起되었는데 어느것이 더 좋으냐 하는 投票한번 부쳐보면 어때요?

南(李峻熙) : 그걸 國民投票부치고 언제, 12月 8日 안되지. (一同웃음)

北(박영수) : 내일이래도 뭐…….

南(宋榮大) : 할 意思가 없구먼 그럼. 最大로 民主主義 發揮한게지.

南(李柄雄) :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게. (一同웃음)

北(박영수) : 우리는 어떤 立場인가 하면 이미 12月8日에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을 하기로 한다는 걸로 10月16日 接觸때 날자를 公開 했으니까 우리는 準備를 합니다. 訪問團交換 그때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準備할테고 그러니까 내 그런 意味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본 거고.

지금 얘기가 우리 200名 對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300으로부터 250, 250으로부터 200, 거기서는 50으로부터 100, 100으로부터 120 이렇게 각각 두차례씩 꺾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0 對 200 이 사이에서 繼續 맴도는데, 뱅글뱅글 돈단 말입니다.

그런 條件에서 우리가 하나의 對策이 있겠다. 역시 둘이 마주 앉아서 오늘 午後에라도 좋고 계속 討論을 둘이 좀 해 보십시다.

南(李峻熙) : 금방 얘기하면,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또…….

北(박영수) : 아니 그래서 둘이 뭐 12時 됐으니까 앉아서 계속 같은 말 하지말고 둘이 얘기를 좀 나누어 보십시요. 그렇게 하면 좋은거 같예요.

南(宋榮大) : 일단 나로서는 오늘 藝術團 規模問題를 討議한 結果에 대해서 希望을 갖습니다. 希望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대로 오늘 午後에 두분만나 接觸하는거 좋습니다. 하십시다. 時間 定하지요.

北(박영수) : 時間, 그쪽에서 午後 몇時에 할 수 있어요?

南(李柄雄) : 뭐 그쪽에서 時間을 定하는 대로, 한 3時쯤이면 어떻겠어요?

北(박영수) : 오늘, 實質的으로 오늘하는데 이것이 되겠는지, 되겠어? 하루

이틀 더 硏究를 해야 되지 않겠어?

南(李峻熙) : 아, 뭐 硏究할게 있어요?

南(宋榮大) : 이제 간단하잖아요?

南(李峻熙) : 간단한데 뭘 그래요.

南(宋榮大) : 決定만 하면 되는 問題데 뭘 그래.

北(박영수) : 단둘이 決定을 척척할 수 있겠어요?

南(李柄雄) : 얘기를 안해도 서로가 다 아는 거니까.

北(김광수) : 좀 時間的인 餘裕를 두고 합시다. 이제 한번 만날적에 決定을 해야 되겠으니까.

北(박영수) : 내가 오늘 午後라고 한 그뜻은 될수록 빨리 만나서 해 보자는 거고, 해 보자는 것이고.

南(李峻熙) : 사실은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北(정덕기) : 지금해야 같은 말 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南(宋榮大) :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午後에 해요.

北(박영수) : 來日쯤 하지요?

北(김광수) : 午後에 合意합시다. 電話도 있으니까 電話로 合意합시다.

南(宋榮大) : 電話하는거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定하지요?

北(정덕기) : 오늘이 무슨 曜日이예요?

南(宋榮大) : 오늘이 月曜日 아니예요, 月曜日. 午後쯤에…….

北(박영수) : 午時쯤, 午後에 해야 또 같은 말밖에 못나와요. 協議도 해야지…….

南(宋榮大) : 그러니까 물론 나가서 각기 協議해서 午後쯤 늦더라도 만나면 돼요.

北(박영수) : 한두時間 協議해서 되겠소?

南(李柄雄) : 그쪽에서 한마디 떨어지면 다 되는건데 뭐.

南(李峻熙) : 어려울게 뭐 있어요?

南(李柄雄) : 그쪽에서 오늘 讓步한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지난번 事實訪問地問題, 訪問地問題가 굉장히 要求가 많았는데도 讓步했고.

北(김광수) : 柄雄先生 항상 깍는 얘기만 하시는구먼.

南(李柄雄) : 아니 50名 그걸 얘기하게 되면…….

北(김광수) : 讓步한게 없다고 하면 理解가 되나요? 그렇게 하지말고…….

南(宋榮大) : 오늘 午後 늦더라도, 늦더라도 만나도록 합시다.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서로 조금 硏究할 時間을 갖고 만나도록 합시다.

北(김광수) : 電話하도록 합시다. 電話하도록 합시다.

南(李峻熙) : 뭐 200하고 100하고 數値 調整하는데 뭐 어려운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北(박영수) : 우리는 글쎄 200을 받아주면 딱 좋겠단 말이예요.

南(李峻熙) : 우리도 마찬가지지…….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런 狀態에서 오늘 午後에 만나서는 意義가 없어요.

南(宋榮大) : 자, 그러며는 오늘 午後가 어렵다며는 내일은 어때요?

北(박영수) : 어렵다는게 아니라 그 展望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南(宋榮大) : 來日이면 되겠어요?

北(박영수) : 來日…….

北(김광수) : 電話로 합시다. 電話로 얘기해야…….

南(李柄雄):우리 時間이 없어요.

北(박영수):우리 平壤에 올라갔다 와서, 平壤에 올라가서 委員長도 있는 거고 討論도 좀해야 되는거지.

北(정덕기):서로 讓步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北(박영수):오늘 平壤에 올라가고 來日 討論하고 모레 내려오고…….

南(李峻熙):아, 박선생도 午後라고 얘기 해 놓더니 이제 또 平壤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北(박영수):될수록 빨리하자는 거지 뜻은 그 뜻이지 그렇게 하자구요.

南(宋榮大):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두분 만나는것 오늘 來日中에 해야되고 또 하나는 우리 次期接觸關係, 6次 實務接觸도 날짜를 定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考慮해서 하자고요.

北(박영수):그것도 이제 定해야지 來日, 모레…….

南(李柄雄):모레 하자고요?

北(박영수): 13, 14, 15, 16.

南(宋榮大): 15일날 會議가 있지요?

北(박영수): 16日이 아니야? 來日은 14日…….

오늘이 13日이지, 16日날은?

北(김광수):연거퍼 會談이 있지요.

南(李峻熙):會談은 그쪽에서 하잖아요?

北(박영수):아, 16일날…….

南(宋榮大):그쪽 地域에서 하니까.

北(박영수):그러면 같은 날 두곳에서 會談 어떻게 하겠어요?

南(李柄雄):來日, 18日, 19日하면 어떻겠어요?

北(김광수) : 19일날 選擧가 있어요.

南(李柄雄) : 이번주 끝내야 돼요. 이게…….

南(宋榮大) : 이번주 넘기면 안돼요.

南(李柄雄) : 이번주 넘기면 별써 우리가 提議한 날짜하고 걸리니까…….

南(李峻熙) : 來日합시다. 來日…….

北(박영수) : 이번주에는 해야 되니까 오늘이 13, 14, 15日날, 16日날 會談있지 17日날, 17日날 해요? 17日날?

南(李峻熙) : 17日날도 아, 그 時間이 問題네 날짜가 그…….

南(李柄雄) : 우리 會議는 來週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北(박영수) : 우리 會談은 아무래도 來週로 넘어가야 돼요. 둘이 여기서 두분이 合意를 빨리 찾아서…….

南(李峻熙) : 지금 17日 둘이 만나는거 얘기하는 거요?

北(박영수) : 예.

南(李峻熙) : 아. 그 너무멀지…….

南(宋榮大) : 두분 만나는건 오늘 午後 늦어도 來日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北(박영수) :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구요. 아무래도 우리 委員長하고 한번 電話라도 해야 하잖겠어요? 午後에, 午後에 電話를 할께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午後에 電話를 하는건 좋은데, 來日은 넘기지 맙시다. 그건 하나 못 박읍시다.

北(박영수) : 可能한 限 빨리하는 方向에서 午後에 우리 連絡代表 電話를 걸어 주겠어요.

南(宋榮大) : 오늘 기다릴건데 내일은 넘기지 말자고.

北(박영수) : 그렇게 합시다. 아 그래서 最大限 빨리, 두분이 만나는건 그

렇게 하고…….

南(宋榮大):박선생! 이건 約束하자고 來日은 넘기지 말자고.

北(박영수):來日? 하여튼 내가 가서 直接 電話를 하겠는데 午後에 電話를 걸어줄께. 우리 다음 6次接觸은 어떻게 하겠어요?

南(宋榮大):우선 來日은 넘기지 말도록 하고, 그건 분명히 하고 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北(박영수):하여튼 電話를, 午後에 電話를 해 줄께요.

南(李柄雄):아니, 平壤하고도 電話가 좋겠다. 뭐 갔다왔다 하느니…….

北(박영수):午後에 내 電話를 하겠다고요.

北(정덕기):우리 電話를 해요.

南(宋榮大):우리로서는 來日 안넘기는 걸로 알고 가겠어요.

北(박영수):그쪽 要求를 내가 알았으니까 하여튼 午後에 電話로 連絡가지자.

南(宋榮大):예. 알겠어요.

北(박영수):다음接觸, 다음接觸은 내가 부를 차례인가?

南(宋榮大):그렇지요. 朴先生 불러 보십시요.

北(박영수): 15日, 16日날 政治·軍事, 體育會談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日날 道·市·郡 人民會議代議員 選擧날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選擧는 해야 되겠고 選擧가 끝나고 내려오며는 23日날. 두분 그 사이에 여러번 만나서 折衷하라고 그러고 그때는 完全妥結을 볼 수 있도록…….

南(宋榮大):이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지금 貴側의 提案을 보더라도, 그걸 中心으로 하더라도 故鄕訪問團의 名單交換을 交換始作 20日

前에 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렇게 보며는 18日날 訪問團 名單交換을 해야 됩니다.

北(박영수) : 그쪽대로 하면 한달前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지 않았소?

南(宋榮大) : 우린지금 先例대로 하자 그랬는데, 先例대로 하게되면 訪問 10日前이예요.

北(박영수) : 그쪽 原來 한달前에 하자 그랬든지 뭐 合意가 늦어지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23일날 接觸에서는 合意書가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새 두 代表들…….

南(李柄雄) : 오늘 充分히 나올 수도 있는데…….

南(宋榮大) : 23日로 이렇게 너무 늦게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北(박영수) : 19일날 選擧가 있단 말이예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23日이면 너무 늦어 밖에서 보는 분들이 이게 마치 妥結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늦추어지는 걸로 誤解를 합니다.

北(박영수) : 그래서 내가 하나 提起를 하겠는데 오늘 나가서 서로 記者會見 할 때 지금 雙方提案을 놓고 個別 代表들이 接觸한다는걸 公開를 합시다. 그래야 希望을 가져요, 記者들이…….

그 어드래요? 그래야지 그걸 말하지 않고 또 23일날 定해 놓으면 이사람들 이거 하자는게 아니다.

南(李峻熙) : 물론, 그거를 公開해 놓게 되며는 記者들이 거기에 또 궁금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여기의 縮小版이 되어 거기에 또 關心이 그리 가기 때문에 그건 必要가 없어요.

어떻든 거기서 무슨얘기 나왔는가도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얘기 안해주면 얘기 안할 수 없잖아요?

北(박영수) : 記者들 그때는 안나온단 말이예요.

南(李峻熙) : 아니, 그걸 公開해 놓으면 나중에 돌아가서라도 그때 그동안 接觸이 있었는가? 그러면 없었다, 있었다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가 얘기 됐는가도…….

北(박영수) : 그러니까 方法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雙方사이에 일체 말하지 않기로 돼 있다. 그러면 되지 뭐…….

南(李峻熙) : 그럴 바에야 아주 처음부터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야. 그 얘기는 하지말고…….

北(박영수) : 그러면 이게 잘 안되고 不可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印象을 가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南(宋榮大) : 그래서 貴側이 19日날 그런 行事가 있다고 그러며는 이틀 앞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南(李柄雄) : 17日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北(박영수) : 아, 그래도…….

南(宋榮大) : 그러니까 모레 두분 만나고 17日날 우리 또 6次接觸 갖고 그러면 되잖겠습니까?

北(박영수) : 17日날 體育會談 뭐 그 이튿날.

南(宋榮大) : 體育會談 16日이지요.

北(박영수) : 16日인데 뭐 그 이튿날…….

南(宋榮大) : 어떤 問題가 있는가 하면 밖에 記者들이 볼 때에 18日날 이게 訪問團 交換으로부터 逆算해서 20日 前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건 時

間的인 餘裕가 있다 말이야 이런 印象을 받을 수 있어요. 좋잖아요?

南(李峻熙) : 오늘 妥結보기로 한건데…….

北(박영수) : 오늘 意見 상당히 接近됐어요. 意見接近 됐어요 오늘은.

南(李峻熙) : 다음번에는 기필코 妥結이 되고 交換해야 되는데…….

北(박영수) : 벌써 記者들이 다 들어와 있네. 이거…….

南(宋榮大) : 記錄用인가? (隨行員에게 確認)

南(李峻熙) : 17日날 交換하자고요?

北(박영수) : 그래서 그 사이에 두분이 充分히 두서너 차례라도 해서…….

南(李峻熙) : 두서너 차례는 뭐 두 서너 차례, 한번 얘기하면 되는건데.

北(박영수) : 아, 그럼 한번해서, 한번을 해서 妥結을 지어서 23日날 公布를 하자구요.

南(宋榮大) : 아, 그러니까 17日날 6次 갖자고요.

北(박영수) : 17日날?

南(李柄雄) : 그래야 會議 다 끝나고 우리 며칠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南(宋榮大) : 그거 간단한거 아닙니까? 그것만 合意되면 뭐 合意書 가지고 와서 맞춰보면 될거 아니예요?

北(박영수) : 같잖아요. 17日날 合意書 發表하나 23日날 合意書 發表하나 똑같잖아요?

南(宋榮大) : 아니 밖에서 記者들이나…….

北(박영수) : 그렇기 때문에 난 그 對策으로서 오늘 이 個別接觸에 넘겨서 마무리 짓도록 한다는걸 發表하자는 거요.

北(정덕기) : 宋先生! 우리가 여러가지 생각해서 그러는데 오늘 合意합시다.

北(박영수) : 이거 솔직히 말하면 오늘 接觸으로서 이게 妥結안되며는 사

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17日날 會談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 個別的으로 折衷하는 事業을 한다 이걸 記者들한테 알립시다. 그래야 希望을 가집니다.

南(李峻熙): 내가 當事者로서 난 反對요. (一同웃음)

北(박영수): 야, 그거 뭐 當事者야 뭐 하면 좋지 뭐…….

峻熙先生! 이 다음에 功勞者로 보면 됩니다.

南(李峻熙): 功勞者?

南(宋榮大): 그런 2人接觸이 있다는 事實이 밝혀지며는 또 벼라별 臆說, 推測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며는 雰圍氣에 影響이 있다고요.

北(박영수): 그러면 좀 며칠 앞당깁시다. 21日날, 아무래도 우리가 選擧를 끝내고 내려와야 돼. 選擧前에 못내려와. 21日날.

南(宋榮大): 火曜日날 이구만.

北(박영수): 21日날, 그렇게 합시다.

南(宋榮大): 21日날 어때요? 月曜日날.

北(김광수): 選擧, 19日날 있다 그랬잖아요? 選擧마치고 내려와야 되니까 서울에서 여기 나오는 時間하고 우리 내려오는 時間하고 差異가 있잖아요.

南(宋榮大): 자, 좋습니다. 21日날 합시다.

北(박영수): 좋소.

北(정덕기): 아, 그날 軍停委 會議가 있어요.

南(李峻熙): 참 그렇구만, 火曜日날.

北(박영수) : 그건 諒解를 求합시다. 그건 정선생 諒解를 좀 求하시요.

뭐 이제 記者들 다 들어오겠는가? 제깍 나갑시다. 다 들어오기 前에.

南(宋榮大) : 수고했습니다.

北(박영수) : 수고했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表團 記者會見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 : 1989.11.13 (月) 12:51 ~ 13:20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發表 및 答辯 : 宋榮大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接觸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오늘 接觸에서는 크게 세가지 問題를 協議했습니다.

첫째는 藝術團의 規模問題고, 둘째는 實況中繼問題이고 셋째는 次期 接觸 날짜 問題였습니다.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우리側에서는 藝術團의 規模를 120名으로 修正提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50名 내놓았다가 그 後에 100名으로 늘였고 오늘은 또 120名으로 늘여서 提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20名 規模를 提示하게된 背景에는 몇가지 事項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藝術團이 赤十字事業 次元에서 推進된다고 하는 事實과 國際的인 一般慣例를 考慮했고 또 離散家族들의 意思들도 저희가 充分히 留念을 했습니다.

특히 雙方間에 藝術團 數字問題로 因해서 이번 「訪問團」實現이 支障을 받아서는 결코 안되겠다라고 하는 判斷에서 또다시 數字를 讓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藝術團의 規模를 200名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120으로 내놓았고 北側에서 200으로 내놓은 그 狀況에서 우리側에서는 이 數的隔差를 좀 좁혀야 되겠다.

그저 雙方이 한 발자국씩 서로 讓步하게 되면 그 中間 折衷點을 發見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立場에서 이 120과 200사이에서 折衷을 積極試圖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程度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程度 合意點이 보이니까 이 問題를 우리가 集中的으로 協議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結論을 내리자 해서 저희로서는 이 120과 200사이에서 어떤 中間點을 摸索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努力을 했는데 그 途中에 北側에서 갑자기 態度를 바꿔 가지고 「便宜主義로 하자」하는 主場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故訪團과 藝術團의 數字를 합쳐 가지고 總 500名 規模로 하되 그 500名 規模안에서 雙方이 各其 便利하게 定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北韓側의 便宜主義 主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接觸때 그들이 내놓은 立場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便宜主義라고 하는 것은 우리 雙方이 赤十字會談 해오면서 貴重히 여겨왔던 「相互主義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指摘을 했습니다. 이 「相互主義」라고 하는 것은 規模問題와 聯關시켜 생각할 때에 總數面에서도 同數가 되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同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同一한 基準이 適用되어야 한다.

바꿔 말씀드리면 「同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同數原則이 適用되어야 된다」하는 뜻에서 보면 北側이 내놓은 便宜主義라고 하는 것은 이 「相互

主義」와 맞지 않다.

해서 일단 便宜主義的인 그런 發想은 뒤로 돌리고 지금까지 우리 雙方이 어느 程度 意見이 接近되고 있는 이 120名과 200名 사이에서 中間値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北側에서 여기에 대해서 呼應을 하지않고 자꾸 그런 便宜主義대로 하자는 式으로 이얘기를 하는 바람에 結果的으로 折衷點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같이 오늘이 고비인데요. 重要한 會談인데 雙方의 意見이 어느 程度 죽 接近되는 狀況속에서 갑자기 態度를 突變해 가지고 지난번 接觸때 내놓았던 主張을 되풀이 하는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이제 實況中繼問題와 關聯해서 우리側에서는 「相對側의 藝術團公演을 TV와 라디오로 實況中繼할 수 있다」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事實 지난번 接觸때 우리側에서 實況中繼問題를 「先例에 따라서 便宜대로 하자」고 主張했던 것은 이런 理由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規模問題를 除外한 餘他問題가 많이 있는데요. 例컨대 訪問地 問題라든가 公演內容·公演回數·公演方法·相逢方法 등등해서 나머지가 한 아홉가지 問題가 있는데 이것을 條目, 條目 個別討議하려고 하려면 時間上 12月 8日날 故鄕訪問團 交換이 어렵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重要한 規模問題만 어느 程度 合意를 해놓고 그밖의 모든 問題를 先例대로, 1985年에 했었던 先例대로 準用을 해서 一括 妥結해 버리자. 時間이 促迫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하지말고 한꺼번에 全部 다 妥結해 버리자 하는 立場이었습니다.

그러한 脈絡에서 그 實況中繼問題도 過去에 했던대로 便宜대로 하자. 便宜대로 하게 되면 우리側에서는 放送社의 自律判斷에 의해서 實況中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錄畵中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立場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實況中繼問題를 갖다가 先例대로 便宜主義로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北側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 實況中繼問題를 重要한 고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實況中繼問題가 實現되지 못하면 다른 것 못하겠다는 姿勢입니다.

지난번 接觸末尾에 北側團長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남은 것은 規模問題하고 實況中繼問題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規模問題·實況中繼問題 南쪽에서 받아 주어야 成事된다』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北側에서는 이 實況中繼問題를 相當히 比重을 두고 重要視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요 이 實況中繼問題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訪問團」事業의 本質問題가 아닙니다. 技葉的인 問題입니다.

이번 「訪問團」事業의 本質問題는 역시 故鄕訪問團쪽에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故鄕에 더많이 가서 省墓도 좀하고 또 訪問期間도 좀 늦추고 故鄕訪問團 對象選定하는데 있어서 서울·平壤에 故鄕을 둔 사람으로 制限하지 말고 「南과 北에 故鄕을 둔 사람」으로 좀 擴大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訪問團」事業의 本質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이 本質問題에 관해서는 度外視를 하면서 오히려 附隨的이고 枝葉的인 藝術團쪽에만 關心을 기울이고 그쪽에 主張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事理로 따져 보면 藝術團 問題, 특히 實況中繼問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枝葉的인 問題인데도 不拘하고 相對側에서 「이것 아니면 다른것 一切 못한다」하는 姿勢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이 豫定된 期日안에 「訪問團」을 實現시키려고 그런다면 『할 수 없다. 事理에는 좀 어긋나지만 이것 받아 줄 수 밖에 없다』해서 우리가 오늘 『좋다, 이 實況中繼 받는다』했습니다.

그런데 事實上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實況中繼라는 것이 이것은 放送社가 自律的으로 決定할 問題입니다.

이 赤十字社에서 이것 뭐 해야 된다하고 뭐 義務를 規定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로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問題가 次期接觸날짜입니다. 事實 우리側에서는 이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不過 20여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接觸에서 끝낼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意見接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午後에라도 다시 갖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北側에서 反對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午後, 늦어도 來日中으로 다시 한번 接觸을 갖고 매듭을 짓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北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反對를 하면서 23日날을 提議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지금 12月 8月날 訪問團 交換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逆算을 해 가지고, 逆算을 해서 10日 내지 20日前에는 故鄕訪問團의 名單을 서로 交換해야 됩니다.

우리側 合意書案에 의하면 또 지난 1985年 1次 「訪問團」交換時 雙

方 合意書案에 의하면 訪問 10日前에 相互 名單을 交換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基準을 設定해놓고 보면 오는 이달 11月 28日날 「訪問團」 名單을 交換해야 됩니다.

그리고 北側이 내놓은 이번 案에 의하면 그사람들은 20日前에 故鄕訪問團의 名單을 交換하자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 20日前이라고 하는 基準을 適用하면 오는 18日이죠? 18日날 故鄕訪問團의 名單交換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自己들 主張대로 한다면 오는 18日에 名單交換에 들어가야 되는데 次期接觸날짜를 23日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矛盾을 指摘했어요. 『아니 18日부터 故鄕訪問團 名單을 交換하자고 하면서 왜 次期接觸을 23日로 늦추느냐? 나로서는 理解가 되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자꾸 再强調를 해가지고 結果的으로 次期接觸날짜를 21日로 合意를 보게 된겁니다.

以上이 대체로 오늘 이 接觸結果가 되겠습니다.

質問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요.

2. 質疑·應答

質問：다음번 接觸에서도 可能性이 있습니까?

答辯：다음에요? 예, 제 個人的인 느낌으로는 지금 北韓의 態度가 時間이 갈수록 조금 不誠實한 面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側은 그동안 오늘까지 다섯차례의 接觸을 통해서 많은 讓步를 했습니다.

우선 時期問題를 讓步를 했습니다. 事實 赤十字 本會談은 먼저 하고 故鄕訪問團을 交換하는 것이 順序인데 이것 北側의 要求에 따라서 故鄕訪問團을 먼저하고 本會談을 나중에 하는 方向으로 우리가 讓步를 했습니다.

또 藝術公演團의 規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50名에서부터 120名까지 讓步했습니다.

또 記者團·支援人員 規模도 北側 要求대로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訪問團 交換하는데 記者團 數를 100名으로 생각하고 提議를 했던 것입니다. 100名으로 提議했었습니다.

그런데 北쪽에서는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난 1次 訪問團때 雙方에서 各各 30名의 記者團이 構成되어 가지고 往來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側 기자들이 自己側을 非難했다』해가지고 이것을 口實로 해서 數字를 줄여야 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結局 옥신각신하다가 一括 妥結한다는 精神에서 이것마저 우리 讓步해 주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支援人員 規模, 北側이 내놓은 40名을 우리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支援人員도 우리는 처음에 50名 생각했습니다.

또 가장 重要한 訪問地 問題, 이거 우리 讓步했습니다. 사실 離散家族들의 熱火와 같은 熱望에 비추어 보면 訪問地는 故鄕까지 가서 省墓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側의 要求를 受容해서 이것도 서울·平壤 좋다.

또 訪問期間, 우리는 처음 5泊6日 이야기 했다가 北側이 3泊4日 主張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讓步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實況中繼問題까지 다 그들 要求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北側은 지금까지 어떠한 姿勢를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보시고 있는 바와같이 그들은 이 故鄕訪問團보다 藝術團 交換에 主된 關心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適切할지 모르겠습니다만 北側 代表들은 이번 訪問團事業에 主는 藝術團이라는 겁니다. 故鄕訪問團은 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 「訪問團」事業에 主를 藝術團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規模도 擴大해야 되겠다. 實況中繼해야 되겠다. 또 公演內容도 先例와는 달리 內容을 擴大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北側이 내놓은 公演內容을 보면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는 式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次때 우리가 合意한 바에 의하면 「民族傳統의 歌舞를 中心으로 하고 相對方을 中傷·誹謗·刺戟하지 않는 內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와가지고요, 「傳統歌舞」라는 말 다 빼버리고 「民族的인 것」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같이 이 「民族的인 것」을 公演內容으로 할 경우에 雙方間에 심한 問題가 생깁니다.

왜냐? 이 「民族」이라는 두글자에 관해서 지금 南北이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解釋을 各其 달리하고 있습니다.

北側은 藝術·文化 政策의 基本이 무엇이냐 하면 『形式은 「民族的」

인 것으로 하고 內容은 「社會主義的」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文化·藝術政策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저사람들의 裏面에는 무슨 또 다른 意圖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지난 1985年 1次 「訪問團」交換할 때에 雙方이 合意하기를 公演 「프로그램」을 事前에 訪問 3日前에 相互 交換하도록 合意를 했습니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하면 自己側에서 하는 「프로그램」內容, 輪廓을 갖다가 相對方側에 알려줘서 相對方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理解를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誤解의 素地를 없애자 하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의 事前交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사람들은 이것은 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北쪽에서는 이 藝術團쪽에만 關心을 놓고서 『숫자 늘리겠다, 實況中繼하겠다. 內容을 갖다가 확 펼쳐보겠다. 「프로그램」을 交換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意圖냐 그것이죠, 이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北韓의 態度를 그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會談이란 것이 한쪽에서 讓步를 하면 저쪽에서 讓步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北쪽이 藝術公演團 숫자를 300名에서 200名으로 100名 줄인 것 以外에는 하나도 態度變化가 없습니다. 하나도 態度變化가 없어요.

이런 點을 綜合的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次期接

觸날짜를 그렇게 자꾸 意圖的으로 늦추는 그런 事實과 聯關시켜 볼때에 앞으로 接觸, 次期接觸 展望이 不透明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質問이 있습니까?

質問 : 北側 團長 會見에서 말이죠, 우리側의 120名 藝術團 規模를 實況中繼를 前提條件으로 120名을 한다 그랬었던것 같은데요.

規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答辯 :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實況中繼 좋다」 그거예요. 그리고 「規模問題 120名 하자」 이것예요. 簡單합니다.

質問 : 어떤 前提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答辯 : 처음에는 『120名하는 前提에서 實況中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討論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實況中繼하고 規模는 規模대로 120名으로 折衷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前提條件이 아닙니다.

質問 : 아까 『次期接觸의 展望이 不透明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規模를 北側 主張대로 200名으로 우리가 受容하는 경우에도 年內 實現可能性이 不透明하리라고 보아집니까?

答辯 : 그런데 지금 規模問題, 지금 우리가 이제 「120」하고 「200」線을 저희로서는 折衷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하고 「200」사이에서 中間點을 찾으려고 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融通性을 저희는 賦與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妥結이 되지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相應하는 北韓의 態度가 나타나면 이것은 妥結이 됩니다.

그런데 北側이 그럼에도 不拘하고 「200」線을 꼭 固守하면 이건 어

렵습니다.

質問 : 그 內容自體에서도 問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公演內容 自體가 말입니다. 「프로그램」도 交換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答辯 :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그래요. 그것도 저희가 하나 하나 討議하겠다면 12月8日 못하니까 過去 우리 合意한 先例대로 하자 말이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北쪽에서 다음에 나와 가지고 그것도 하나 하나 다시 討論하자. 특히 公演內容, 自己들 主張대로 하자고 固執하게 되면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妥結이 안됩니다, 이것.

質問 : 그러면 前提條件으로 200名 規模를 일단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쪽에서 기왕에 讓步를 했는데 거 뭐 80名 가지고 오히려 融通을 보여봐야 한 4～50名 差異인데 200名을 받아들이고 나서 北側이 그것 가지고 또 細部討論을 하자고 하면 實質的으로 完全하게 北側이 會談을 안하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側에서 旣往에 讓步하고 그것마저 200名으로 讓步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答辯 : 그것은 역시 協商이라는 것이 相對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相應하는 態度를 보여야지요.

그리고 지금 時日이 促迫하게 事實上 宿所準備 등 여러가지 問題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側의 경우는 宿所 定하려고 그러면 한달 前에 豫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는 20餘日 밖에 남지 않았고 또 藝術團 準備하는

것도 그렇죠. 이미 우리가 準備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規模가 빨리 決定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할 것인데 이것도 지금 流動的이고 말이죠.

이런 點들을 綜合的으로 놓고보면 여하튼 우리로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해야 되겠는데 果然 北側이 次期接觸에서 그와같이 相應한 態度變化를 보이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關鍵입니다.

質問 : 아까 數字를 折衷을 하다가 北側이 이제 態度를 바꿨다고 그러셨는데요.

具體的으로 어느 程度 折衷된 案이 나왔습니까?

答辯 : 안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그말은 했습니다. 지금 이것 120名하고 200名 사이인데 「이 問題에 관해서 우리로서는 融通性을 가지고 있다」하는 暗示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北側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생각을 해서 말이죠 自己들도 좀 融通性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質問 : 北側이 끝까지 200名을 固執하면 結局 안된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解釋해도 되겠습니까?

答辯 : 그 問題는 저로서는 일단 말씀드리는 그런 立場입니다.

質問 : 지금 故鄕訪問團 規模에 관해서 말이죠, 宋代表께서 第4次 接觸때 『提案上의 意見 一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接觸에서는 그와 關聯하여 具體的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答辯 : 그 問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質問：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完全合意라고 보아도 됩니까?

答辯：그런데 그것은 좀 「뉘앙스」의 差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提案上의 지금 數字가 300, 300 이렇게 一致가 되어있는 狀態이지 거기에서 어느쪽에서 이게 지금 『合意되었다』, 『아직 안되었다』 이런 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그런 狀態예요, 그것은요.

質問：그런데 박영수 단장은 『合意되었다』라고 4次 接觸이 끝난 뒤 記者會見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答辯：그런데 그것은 이제 會談하고 記者會見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같이 會談에서 어떤 合意로 確認하려고 그러면 雙方 首席代表間에 『자 이렇게 合意하는 겁니다. 同意하는 겁니다』 이런 分明한 意思表示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質問：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北側의 態度를 說明하시는 가운데 藝術團 規模를 200名으로 提案했다가 거기에 대해 우리側에서 折衷을 試圖하니까 갑자기 便宜主義를 내걸었다고 그러셨는데 北側이 그 便宜主義를 撤回했습니까? 아직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答辯：그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저는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質問：原點으로 되돌아간 것이군요? 말하자면.

答辯：그렇지요.

質問：오늘 「20」이라는 數字의 意味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50名씩 이렇게 늘이고 줄여왔다가 갑자기 20名을 늘였는데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答辯 :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考慮가, 折衷을 위한 하나의 方法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以上으로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 : 1989.11.13 (月) 12:13 ~ 12:37

* 場所 : 板門店 北側 地域 「板門閣」앞 階段

* 發表 및 答辯 : 박영수 團長

1. 記者會見文

오늘 接觸에서는 전번 接觸에 이어서 우선 「訪問團」交換問題를 討論했는데 우리가 事前에 어떤 提案을 했는가 하면 雙方이 지금까지 基本發言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基本發言이라는게 깁니다 대체로.

두 側에서 基本發言을 하면 한 時間이 지나곤 합니다, 대체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一種의 宣傳的인 內容을 담는 基本發言을 하지말고 처음부터 實務討議에 들어가자. 우리가 그것을 提起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合意되어서 처음부터 「訪問團」 規模問題, 具體的으로 말하면 藝術團 規模問題 討議가 進行되었습니다.

이 問題와 關聯해서 지난번 接觸때에 250名으로 할데 대해서 50名 縮小한 規模案을 내놓았다가 오늘 接觸에서 다시금, 다시금 어떻게 하나 이 藝術團 規模問題를 妥結짓기 위해서 다시 50名 줄여서 200名으로 할데 대한 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0名으로 할데 대한 案을 提起한 것은 원래 우리 藝術人들의 要求도 그렇고 온 겨레의 要求도 그렇고 北과 南에서 지금 서로 藝術들이 發展이 되었습니다.

그 發展된 藝術의 最高水準을 서로 相對側 地域에 가서 보여주자, 보여주도록 하자. 그러자면 무슨 4～50名의 人員 가지고는 困難하니까 그래서 300名으로 할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主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藝術團 規模問題 가지고 合意가 되지 않기 때문에 藝術人들과 여러차례 協議를 거듭했습니다.

그 結果에 『그럼 최소한으로 200名線까지만 合意해 달라』 이런 意見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藝術人들로서는 200名은 最終線이다. 어떻게 하나 이것을 合意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接觸에서 우리가 200名으로 藝術團을 構成할데 대한 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南側은 오늘 처음에 지난번에 내놓았던 藝術團 規模 100名 案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런 修正案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南側의 會談姿勢를 놓고 볼 때 眞實로 지금 膠着狀態에 빠진 藝術團 規模問題를 妥結하자는 거냐? 妥結하는데 關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疑心을 하면서 討議를 계속 했는데 結局 마지막, 會談中盤까지 藝術團 規模問題에서 아무런 妥協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藝術團 規模問題만은 오늘 妥結짓자는 意味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案을 다시금 내놓았습니다.

그 案이 뭣인가 하면 總規模만 合意하고, 總規模 藝術團·故鄕訪問團·記者·隨員·團長을 包含해서 總規模 571名의 規模를 合意하고 그 안에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의 規模를 各其 便利한대로 하자. 이 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記者여러분들이 그것을 얼핏 보면 우리가 지난번 때에 「50名부터 300名까지 各其 便利한대로 하자」하는 것과 뭐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놓은 提案은 分明히 總規模를 合意한 前提下에서 그 안에 構成을 便利한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이 案에 대해서도 南側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訪問團」規模, 藝術團 規模問題 討議終盤에 가서 南側에서는 自己네가 조금 讓步를 하겠다 하면서 藝術團 規模를 120名으로 할데 대한 새로운 案을 내놓았습니다. 120名.

그래서 120名과 우리側이 내놓은 200名 案을 놓고 折衷을 계속했는데 結局은 이 問題에서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問題들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다 論議되지 못했습니다. 그 論議되지 못한 理由는 이 「訪問團」規模問題만 合意되면 나머지 問題는 別問題가 없다.

또 南側에서 實況中繼, 藝術公演團의 藝術公演의 實況中繼 問題도 받아들일 用意를 表示했기 때문에 그 問題에 대한 論議가 거의 進行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會談날짜는 11月 21日로, 11月 21日 계속하기로 合意가 됐습니다.

오늘 會談을 끝마치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이게 遺憾스럽지마는 果然 南側에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에 關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많은 面에서 좀 確信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가 藝術團 規模를 300名에서부터 100名까지, 저 100名을 줄여서 200名까지 낮추었는데 南側에서는 지금 120名 以上은 못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더 折衷을 하기로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會談展望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절대코 落心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원래 모든 일에 대해서 確信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接觸때에는 藝術團 規模問題가 合意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 問題들도 充分히 合意되리라고 展望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 11月 23日에 合意된다고 해도 12月 8日 豫定대로 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疑問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그 問題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면 12月 8日에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을 할데 대해서는 지난 10月 16日에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이에 12月 8日에 「訪問團」交換을 하기 위한 準備를 지금 本格으로 하고 있고 오늘 南側 代表들의 말에 의하면 南側에서 그 準備事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月 23日에, 21日에 合意가 된다고 해도 12月 8日에 하는데는 거의 支障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藝術團의 實況中繼問題를 지금 南側代表들은 前提條件입니다.

前提條件인데 무슨 前提條件인가 하면 『藝術團을 各其 120名으로 하는 前提下에서 藝術團 實況中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交換, 前提條件으로 될 問題가 아니다. 그것은 藝術團 規模問題는 이건 거저 規模問題대로 合意해야 될 問題고 藝術團 實況中繼問題는 이것은 應當 해야되는 問題다. 이것은 더 論議할 餘地가 없다.

저는 그렇게 答辯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한 6～70名의 記者

여러분들이 와있는데 北과 南이 藝術團을 交換하면서 그것을 테레비나 라디오로 實況中繼하는 것을 反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記者들은 아마 여기 손(手)을 들라 그러며는 손을 들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다 實況中繼를 해야 한다고 認定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저 우리가 主張한대로 그건 너무나 當然한 問題이기 때문에 合意되리라고 생각하고 藝術團 規模問題도 아마 南側에서 좀 立場上 變化가 왔으면, 오며는 11月 21日 第6次 接觸에서는 이 「訪問團」交換問題, 本會談 再開問題 討議를 위한 北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아주 기쁘게 結束되리라고 저는 確信합니다.

以上 말씀드립니다.

2. 質疑·應答

質問 : KBS記者입니다. 저는 뭐 會談에 대해서는 門外漢입니다만 會談이라는게 妥協과 讓步가 前提가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 지금까지 모든 狀況으로 보았을 때 北側의 박영수代表께서는 상당히 會談을 잘 진척을 시키셔 가지고 모든 面에서 南쪽의 讓步를 많이 받아낸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에 問題가 되었던 記者團의 交換問題라든가 隨行員의 名數라든가 특히 最近에 또 우리 記者團에서도 많이 그 實現可能性 與否를 疑心을 했던 實況中繼權까지도 받아내신 그런 成果를 거두셨는데, 北側에서는 유독 數字에 관해서 公演團의 數字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여서 그것을 固執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認識을 갖게 되는데 그 點에 대

해서는 어떻게 說明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答辯 : 우리가 또 固執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말은 좀, 내 그 난 固執한게 없다는 것을 前提로 합니다.

지금까지 會談에서 누가 讓步를 많이 했느냐? 이런 問題를 純全히 「누가 무엇을 讓步하고 우리가 무얼 讓步하고」 問題를 이렇게 보아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實例를 들어서 애당초 처음부터 틀린 提案을 내놓았던 것을 正當한 提案에 接近해오는 것도 그것도 讓步로 보겠는가?

그래서 비슷한 性格의 提案을 놓고 또 비슷한 地位를, 意義를 가지는 提案을 놓고 거기서 折衷을 하면서 讓步를 했다면 그걸 讓步로 볼 수 있지만 자, 實況中繼問題 같은 것, 하나 물어 봅시다 記者先生!

實況中繼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솔직한 心情, 記者의 心情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南側의 記者다고 記者라는 立場에서 떠나서 하나의 民族成員의 立場에서 한번 對答해 보십시요.

質問 : 좋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對答을 드리겠습니다. 對答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會談이 南北間에 있어서 赤十字會談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지 會談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高位當局者 會談이라든가 國會會談·體育會談·赤十字會談 등이 있는데 이 모든 問題가 똑같이 實況中繼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問題에 있어서도 固執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點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辯 : 역시 아까 序頭에 會談에 대해서 門外漢이라고 이제 前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理解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會談實況中繼問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저 公開냐 非公開냐 이거고. 藝術團 交換, 北南 藝術團 交換하실 때 그것을 實況中繼하느냐 안하느냐 이 問題지, 이 問題하고 네가지 會談이 되는데 그것을 다 公開한다면 反對없다 하는 그것은 아예 애당초 말이 안되는데 이것을 좀 혹독하게 말하면 「語不成說」이라고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質問 : 지금 박단장께서는 말이죠, 다음 接觸에서 成事 可能性을 다소 樂觀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名 對 120名 藝術團 規模에 있어서 다음번 會談에서 北韓側이 다소 伸縮的으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答辯 : 자,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거 내가 다음번 會談提案을 우리가 어떻게 내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問題가 되는데, 이것은 좀 困難하지 않겠습니까? 내 團長으로서. (一同웃음)

내 記者들 앞에서 『다음번에 내가 이런 修正案을 내겠다』 하고 미리 말하록 어렵지 않겠습니까?

質問 : 두가지를 質問드리고 싶은데요.

첫번째가 北韓側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特定한 公演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名이 必要하다 하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그 問題하고 또 한가지는 民間代表인 赤十字代表가 서로 合意를 해서 直接 合意를 하면 그 卽時 放送이 그 生放送을 할 수 있다라고 判斷하고 계시는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答辯 : 그것은 뭐 質問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슨 特定한 藝術公演을 가지고 나갈 意圖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내

가 이미 明白히 얘기를 했습니다.

藝術團 交換이 한달에 한번씩 進行되는 것도 아닙니다. 1年에 한번 進行되는 것도 아닙니다. 1985年度에 처음 進行되었고 滿4年만에 지금 다시 2次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985年度 1次때에는 너무도 처음이고 생소한 때였기 때문에 小規模로 進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로서는 또 일련의 雙方 合意할 때에 잘못한 問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雙方 代表가 다 認定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2次로, 2次로 藝術團을 交換하는 條件에서 이런 狀態라면 南에서는 南에서 도달한 最高의 藝術水準, 北에서는 北에서 도달한 最高의 藝術作品을 가지고 나가서 서로 보여주자. 바로 그래야 北이 南을 잘알게 되고 南이 北을 잘알게 된다.

지금 南쪽에서 北에 대한 바로알기 運動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面에서 이것이 가장 效果的인 方途의 하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내가 藝術은 잘모르는데, 藝術이라는게 當代 社會現實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입니다.

그 藝術을 보면 그 社會가 어떤 社會고 人民들의 感情이 어떻고, 水準이 어떻고 하는 것이 제일 集約的으로 나타나는게 藝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面에서 自己들이 發展시킨 最高水準의 藝術을 서로 南과 北에 가서 서로 알려주자. 그래서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雰圍氣를 圖謀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寄與하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北과 南의 赤十字團體들이 1971年度 本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豫備會談때 合意한 人道主義問題를 解決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섯가지 原則을 合意했습니다.

그 中에 이제 뭐 두가지는 말 안하더래도 세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同胞愛精神을 具現한다」·「赤十字人道主義原則을 具現한다」·「7·4共同聲明의 精神을 具現한다」 그랬습니다.

이 「7·4共同聲의 精神을 具現한다」는게 바로 이 民族和解와 統一에 寄與하도록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以後에 10次까지 北南赤十字 本會談을 進行해오는 過程에 雙方사이에 어떤 問題에 合意를 했는가? 우리가 人道主義問題를 解決해 나감에 있어서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이 大前提에 合意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赤十字가 이미 1次때에 藝術團 交換訪問을 實行시킨 先例가 있기 때문에 이 先例를 살려서 藝術交換公演을 하되 제일 높은 水準의 藝術公演을 서로 보여주자는데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特定한 무슨 藝術 뭐이다. 이런 問題는 여기서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뭐이던가요? 내 잠깐 머리가 좀 나빠서 두번째 質問이?

質問：그러니까 兩쪽 赤十字가 民間團體가 아닙니까? 이 民間團體가 서로 生放送 問題를, 放送社가 自律決定하는 生放送 問題를 어떻게 民間團體끼리 모여 가지고 決定을 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答辯：말씀드리죠. 赤十字가 北南사이의 民族的 和解를 圖謀하고 또 統一에 寄與하려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아마 어느 放送社, 테레비죤放送이든지 라디오放送이든지 그것을 赤十字에서 『實況中繼를 좀 해주십시요』할

때 反對할 그런 言論社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質問：아니, 「各 放送社에 要請을 한다」라는 形式으로 合意文을 만드셔야지 「生放送한다」라고 合意文을 만드는 것은 趣旨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答辯：그건 앞으로 雙方이 協議하면 될 것입니다.

質問：오늘 林秀卿問題가 좀 論議되었습니까?

答辯：오늘 이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다른게 없습니까?

수고들 했습니다.